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371-10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2019 도민의 삶과 정책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연구 보고서

이용자를 위하여



-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는 지역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자료에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 인용된 충청남도 사회조사 통계표는 연구자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처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권역구분은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태안, 보령, 서천), 내륙권(공주,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금산, 논산, 부여)으로 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지역특성 구분(도시, 농어촌)은 현장조사원이 조사구별로 분류한 결과 이므로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서 통계표의 개별 계층별 사례수가 적은 경우는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도민의 삶과 정책」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연구자의 견해이며, 충청남도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CONTENTS

01. 노인복지

충남 거주 노인의 스트레스 실태 및 영향 변인 연구(양정빈) 8

02. 정신건강(자살)

도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사고 현황분석과 정책 방향(최명민) 22

03. 대중교통

충남 대중교통 만족도 및 교통수단 이용특성의 차이(김원철) 40

04. 돌봄

충남 양육자 특성별 아동돌봄 현황 및 정책욕구(최은희) 58

05. 문화다양성(인권)

도민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시사점(우복남) 82

노인복지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1. 충남 거주 노인의 스트레스 실태 및 영향 변인 연구

요약

양정빈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yjb@nsu.ac.kr



- 본 연구는 충남 노인의(만 60세 이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노년기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됨
-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평균 4.08점,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4.59점, 전반적 스트레스는 4.31점으로 조사됨. 노인이 체감하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주거환경 만족 정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이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먼저,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적극적 발굴과 맞춤형 필요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함
- 노인의 신체적 질병, 통증, 만성질환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현재 각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WHO GNAFCC(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살기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19 충남 사회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충남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여, 노년기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학적 적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방어작용으로 노년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에서 사회적 요인까지 광범위하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분노, 공격, 위축, 우울, 자살 등의 심신 장애를 일으키며(이미애, 2009; 정호영·노승현, 2007), 특히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의 감퇴, 만성질환, 심리적 무력감, 경제적 어려움, 은퇴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감소 등은 노년기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노년기 우울증 및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의 65세 인구 비율은 2018년 기준 17.52%로, 전국 평균(14.76%)에 약 2.76%p 높은 실정이며, 2014년 16.04%에서 2018년 17.5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이미 노인 인구가 14% 이상 해당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충남 노인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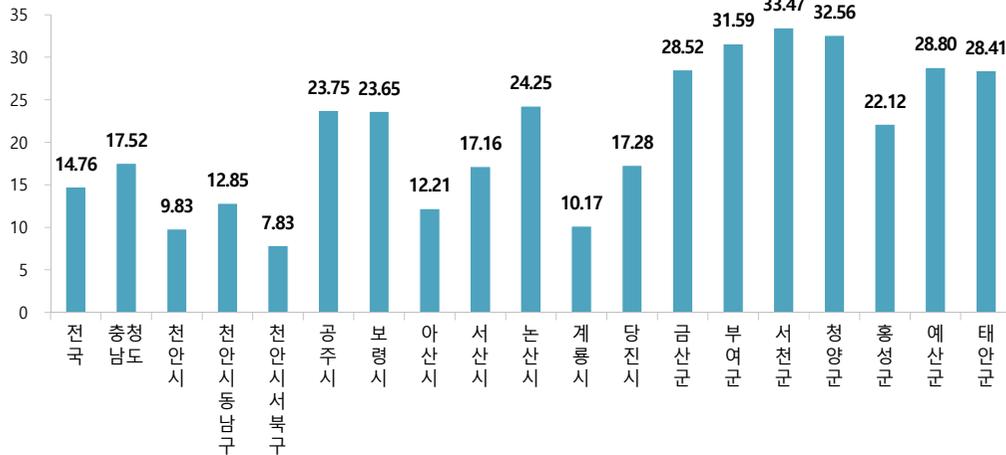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12.70	13.15	13.53	14.21	14.76	
충남	16.04	16.42	16.70	17.15	17.5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4~2018)

특히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시군은 서천군(33.47%), 청양군(32.56%), 부여군(31.59%) 등 3개 군이 있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는 충남의 15개 시군 중 10개가 해당되어 그 비율이 매우 높으며, 시군 간 노인인구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충남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단위 :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8)

이에 본 조사는 2019 충남 사회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2017, 2019 충남 사회조사 각 연도별 노인의 스트레스 정도 추이를 분석하고, 노인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여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 충남 노인의 스트레스 실태 및 영향 요인

충남 사회조사에서 측정하는 스트레스 문항은 개인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라는 문항으로 측정한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 정도, 총 4문항을 11점 척도(0~10점) 측정하여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스트레스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밀접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표 1-2> 스트레스 설문 문항

평가요소	←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보통	→ 대단히 많이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직장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전반적인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7,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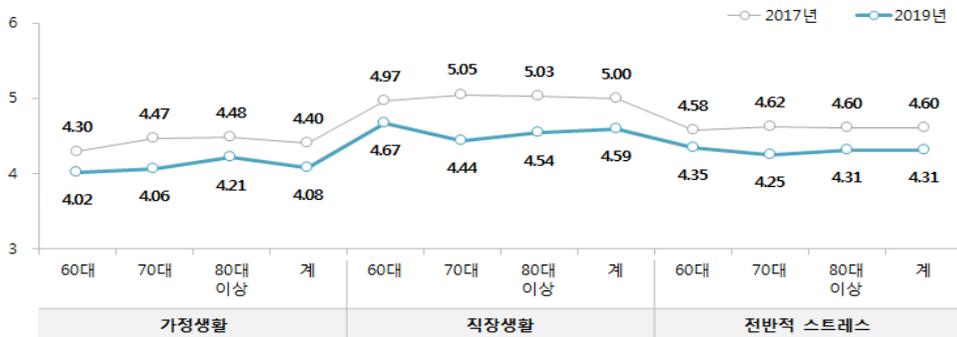
1) 연도별 스트레스 실태¹⁾

충남 사회조사 시 스트레스 측정은 2017년과 2019년에 진행되었으므로, 두개 연도의 스트레스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19년 노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전 영역에서 감소하고 있었다. 가정생활 스트레스는 2017년 4.40점에서 2019년 4.08점으로, 직장생활 스트레스는 2017년 5.00점에서 2019년 4.59점으로, 전반적 스트레스는 2017년 4.60점에서 2019년 4.31점으로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7년 조사는 전 영역에 걸쳐 70대의 스트레스 정도(가정생활 4.47점, 직장생활 5.05점, 전반적 스트레스 4.62점)가 대부분 가장 높은 반면, 2019년에는 가정생활은 80대 이상 노인이(4.21점), 직장생활과 전반적인 스트레스는 60대 노인이(4.67점, 4.35점) 가장 높게 나타나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1-2> 연도별 스트레스 실태

(단위 : 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7, 2019)

1) 2018년 조사는 건강, 가구·가족, 교육, 소득·소비, 주거·교통, 환경, 안전, 여가·문화, 사회통합, 도정특성 등 11개 영역별 항목에 대해 실시함

2) 연령대별 스트레스 실태

2019년 각 연령대별로 노인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은 80대 이상이, 직장생활은 6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스트레스 역시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60대(4.35점) 노인의 스트레스가 80대 이상(4.31점)과 70대(4.25점)에 비해 가장 높았다.

<표 1-3> 연령대별 충남 노인의 스트레스 분석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SD)	F(p)
가정생활	60대	5,200	4.02	6.853** (0.001)
	70대	4,305	4.06	
	80대 이상	2,650	4.21	
	계	12,155	4.08	
직장생활	60대	3,138	4.67	7.058** (0.001)
	70대	1,717	4.44	
	80대 이상	481	4.54	
	계	5,336	4.59	
전반적 스트레스	60대	5,151	4.35	3.152* (0.043)
	70대	4,258	4.25	
	80대 이상	2,611	4.31	
	계	12,020	4.31	

*p<0.01 **p<0.05 ***p<0.001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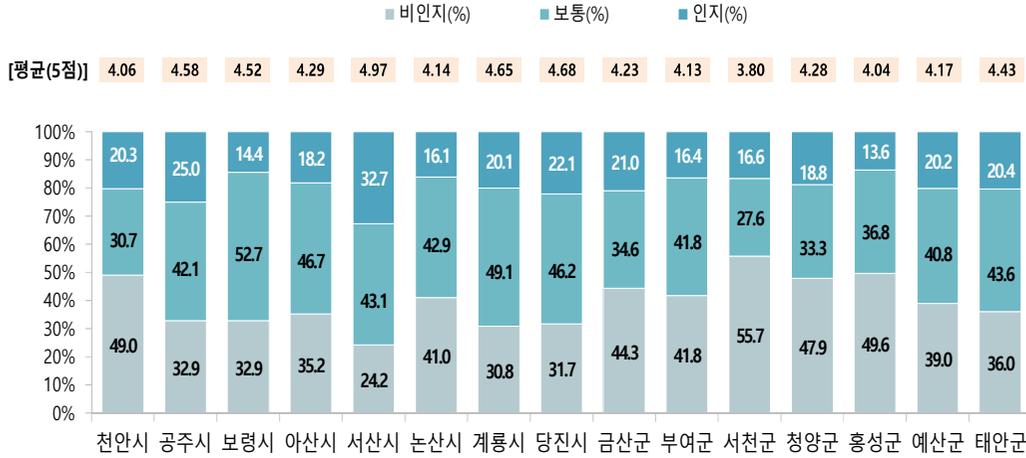
3) 지역별 스트레스 실태

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전반적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스트레스가 4.97점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으로는 당진시(4.68점), 계룡시(4.65점), 공주시(4.58점), 보령시(4.52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천군(3.80점)이었으며, 이어서 홍성군(4.04점), 천안시(4.06점) 등이었다.



<그림 1-3> 지역별 스트레스 실태

(단위 : %, 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표 1-4> 지역별 충남 노인의 스트레스 실태

(단위 : 명, %, 점)

구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사례수(명)	700	799	856	825	782	812	373	691	837	952	973	949	780	946	745
비인지(%)	49.0	32.9	32.9	35.2	24.2	41.0	30.8	31.7	44.3	41.8	55.7	47.9	49.6	39.0	36.0
보통(%)	30.7	42.1	52.7	46.7	43.1	42.9	49.1	46.2	34.6	41.8	27.6	33.3	36.8	40.8	43.6
인지(%)	20.3	25.0	14.4	18.2	32.7	16.1	20.1	22.1	21.0	16.4	16.6	18.8	13.6	20.2	20.4
평균(점)	4.06	4.58	4.52	4.29	4.97	4.14	4.65	4.68	4.23	4.13	3.80	4.28	4.04	4.17	4.43
표준편차(SD)	2.07	2.03	1.60	1.97	1.87	2.12	1.78	1.79	2.18	2.09	2.18	1.72	2.01	2.25	2.05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실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분석 결과, 성별, 지역 특성, 종교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4.26점)에 비해 여성(4.34점)의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스트레스(4.41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4.27점)보다 크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노인(4.24점)이 종교가 없는 노인(4.37점)에 비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 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분석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명)	비인지(%)	보통(%)	인지(%)	평균(점)	표준편차(SD)	t/F(p)
성별	남성	5,285	40.7	40.4	19.0	4.26	2.02	-2.056* (0.040)
	여성	6,735	39.7	40.3	20.0	4.34	2.01	
지역 특성	도시	2,944	37.4	42.1	20.5	4.41	1.97	3.145** (0.002)
	농어촌	9,076	41.0	39.7	19.2	4.27	2.03	
종교	없음	5,654	38.1	41.9	20.0	4.37	1.98	3.461** (0.001)
	있음	6,300	42.0	38.9	19.2	4.24	2.05	
배우자	없음	3,732	39.5	41.3	19.1	4.32	2.06	0.693 (0.488)
	있음	8,232	40.5	39.8	19.7	4.29	2.00	
가구주	가구주	7,944	40.6	40.0	19.4	4.29	2.05	-1.291 (0.197)
	가구원	4,076	39.3	40.9	19.8	4.34	1.96	
사회 경제적 지위	상	221	59.7	23.1	17.2	3.48	2.47	120.596** * (0.000)
	중	5,997	45.5	37.2	17.3	4.06	2.05	
	하	5,790	33.9	44.2	22.0	4.59	1.92	
직업	없음	6,123	40.3	39.4	20.2	4.30	2.12	-0.223 (0.824)
	있음	5,893	39.9	41.2	18.9	4.31	1.90	
가족 유형	조손가정	89	35.2	42.0	22.7	4.52	2.07	1.124 (0.261)
	그 외	9,212	40.6	40.4	19.0	4.28	2.02	

*p<0.01 **p<0.05 ***p<0.001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5)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 치료기관 방문 경험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 문제로 전문 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노인은 3.3%(4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어떤 기관을 방문했는지 살펴본 결과, 정신과가 49.4%, 정신과를 제외한 병원이 40.4%로 대부분 병/의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약국(5.2%), 한의원(2.7%), 심리상담소(1.0%)가 있었다.

<표 1-6>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 치료기관 방문 경험

(단위 : 명, %)

구분	유무			방문기관					
	사례수 (명)	예	아니오	병/의원		약국	한의원	심리 상담소	기타
				정신과	정신과 제외				
60대	5,196	3.4	96.6	46.6	40.3	6.3	4.5	1.1	1.1
70대	4,304	3.3	96.7	56.9	34.7	4.2	2.1	0.7	1.4
80대 이상	2,654	3.1	96.9	42.2	50.6	4.8	0.0	1.2	1.2
계	12,154	3.3	96.7	49.4	40.4	5.2	2.7	1.0	1.2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6)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²⁾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요인으로는 성별, 거주지, 종교 유무,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신체건강, 정신건강, 주거환경 만족, 안전 만족, 가구주에 한해 부채 유무를 선택하였다.

60대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나쁠수록 스트레스가 컸으며, 주거환경 만족과 안전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역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70대는 도시에 사는 노인일수록, 종교가 없는 노인일수록 스트레스가 컸으며, 건강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환경,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80대 이상은 직업이 있고, 배우자가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고, 건강과 주거환경,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었다. 가구주에 한해 조사된 부채 유무와 관련해서는 노인 전

2) 각 항목별 코딩은 성별(남성 1, 여성 0), 거주지(도시 1, 농어촌 0), 종교(있음 1, 없음 0), 직업(있음 1, 없음 0), 배우자(있음 1, 없음 0), 부채 유무(있음 1, 없음 0) 으로 진행하였다.

연령대 모두 부채가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거주지, 종교 유무,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신체건강, 정신건강, 주거환경 만족, 사회 안전 만족, 부채 유무가 노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와 70대는 도시에 사는 노인이 농어촌에 사는 노인보다 스트레스가 더 컸으며, 종교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은 70대 노인에 한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직업은 60대와 80대 이상 노인에 한해 직업이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80대 이상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전 연령대에 걸쳐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과 사회 안전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났으며, 부채 역시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7> 연령대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구분	60대		70대		80대 이상		
	β	t	β	t	β	t	
성별	-.011	-.808	.000	.009	-.013	-.614	
거주지	.047	3.609***	.036	2.441*	.016	.901	
종교	.002	.126	-.034	-2.416*	-.023	-1.247	
직업	.083	6.252***	.023	1.532	.037	1.996*	
배우자	.022	1.692	.014	.917	.051	2.440*	
신체건강	-.131	-8.130***	-.088	-5.088***	-.111	-5.290***	
정신건강	-.276	-17.135***	-.296	-17.109***	-.288	-13.642***	
주거환경 만족	-.152	-11.102***	-.115	-7.539***	-.145	-7.587***	
사회 안전 만족	-.040	-2.916**	-.061	-4.101***	-.079	-4.185***	
가구주	부채 유무	.053	3.231**	.052	2.993**	.064	3.094**

*<0.01 **<0.05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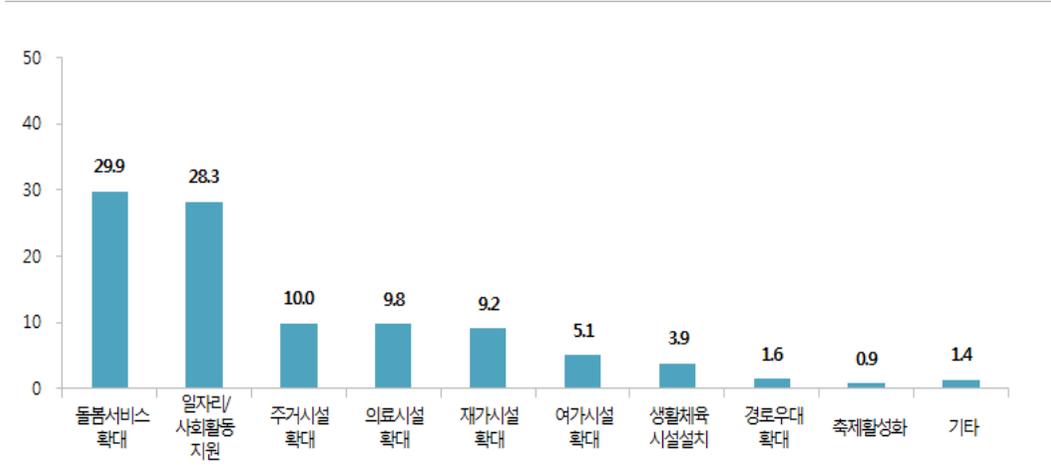
7)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29.9%)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28.3%) 항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노인 주거시설 확대(10.0%), 노인 의료시설 확대(9.8%), 노인 재가시설 확대(9.2%) 등을 원하고 있었다.



<그림 1-4>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연령대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을 보면, 60대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70대는 돌봄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80대 이상은 돌봄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노인은 일자리를, 나이가 많은 노인은 돌봄서비스 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표 1-8>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N)	돌봄 서비스 확대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주거 시설 확대	의료 시설 확대	재가 시설 확대	여가 시설 확대	생활 체육 시설 설치	경로 우대 제도 확대	축제 활성화	기타
60대	5,195	22.9	37.2	9.2	7.5	9.5	5.0	4.6	1.3	1.5	1.3
70대	4,294	30.0	26.8	10.1	8.5	10.9	3.6	5.8	0.7	1.9	1.6
80대 이상	2,649	43.4	13.4	11.2	13.8	8.5	2.1	5.1	0.3	1.1	1.1
계	12,138	29.9	28.3	10.0	9.2	9.8	3.9	5.1	0.9	1.6	1.4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3. 충남 노인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정책 과제

분석 결과, 노인이 체감하는 신체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주거환경 만족 정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우울,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1인 노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려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된 노인정신건강 실태조사(양정빈, 2019)에 의하면 배우자 사별로 인해 독거노인이 된 경우가 조사 대상자의 약 80%를 차지하였고, 배우자 사별 이후 10년 미만의 가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에 비해 인적, 사회적 자본이 더욱 취약한 충남은 도의 특성에 맞는 독거노인 통합 사례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노인의 신체적 질병, 통증, 만성질환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현재 각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충남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팀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약제비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마을 공동체 단위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WHO GNAFCC(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본 조사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 및 시설, 주거환경 안정성, 교통수단 편의성, 여가 및 사회활동, 인적자원의 활용, 사회적 존중과 배려, 의사소통 정보, 지역사회지원과 건강 등 8대 영역의 해당 지표를 충족해나가면서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과정을 통해 노인들이 살기 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미애(2009). 노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와 사회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빈(2019). 충청남도 거주 노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충청남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연구보고서.
- 정호영·노승현(2007). 노인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우울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27(4), 780-805.
- 충청남도(2017~2019). 충남 사회조사.

정신건강 (자살)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2. 도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사고 현황분석과 정책 방향

요약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mmchoi@bu.ac.kr



- 본 연구는 충남도민의 자살충동 실태 및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와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조사 응답자의 약 2.8%(722명)가 지난 1년간 심각한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적 문제였고 그 다음이 가정문제, 신체질환, 외로움 순이었음. 경제적 측면을 좀 더 살펴본 결과 자살충동 경험자는 미경험자에 비해 1년 전과 비교하여 수입이 줄고 부채가 증가한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자살충동 사유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경제, 직장, 가정문제가 주가 되는 산업화된 '도시지역'과, 경제, 심신건강, 외로움이 주가 되는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다르게 나타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대상 별로 차별화된 자살예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함
- 도민의 우울감과 관련해서는 자살충동을 경험한 이들의 우울정도가 통계적으로 더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연령, 학력, 소득, 신체건강, 직업유무와 같은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 만족도와 같은 가족관련 요인, 그리고 대기, 녹지, 치안 등 환경적 요인 등이 모두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스트레스 경험 시, 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상담 서비스 기회는 별로 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인프라 확충, 지역과 인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환경 및 안전 정책 등 타 부서 정책을 포괄하는 포괄적 정신건강 정책방향 제시 등을 제안하였음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IMF 이후 자살률이 급증하여 2003년 OECD 자살률 최고수준을 기록한 이래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전달체계를 수립해 왔으며 외국의 우수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해 왔다. 충청남도에서도 이에 따라 전국 자살률(인구 십만 명 당 자살자 수)이 최고점이던 2011년 31.2명에서 2017년 24.3명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충청남도도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그 충분성은 아직 부족하지만 관련 기관과 실무자, 전문가, 그리고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보다 진척된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가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충청남도의 자살자 수도 전국적인 경향과 같이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7년 충남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수는 31.7명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자는 최근 6년 간 한 해 평균 717명에 이르고 있다(표 2-1 참조). 한편, 2018년도에는 전국적인 자살률이 다시 증가하면서 충남 역시 자살자 수도 749명으로 늘어나고 자살률도 다시 35명을 초과한 것을 보고되고 있다(35.5명).

<표 2-1> 13'-'18' 충남지역 자살 현황(2013~2018)

(단위: 명, 인구 10만 명 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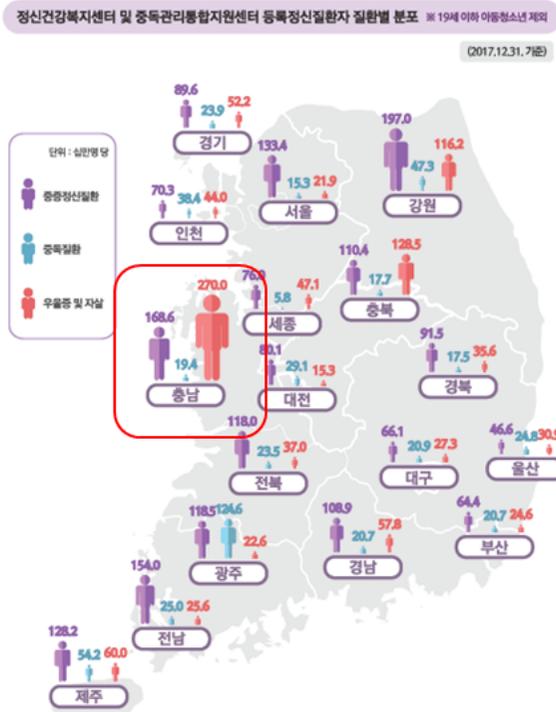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자살자 수	757	746	721	-	665	749	717
자살률	37.4	36.5	35.1	32.1	31.7	35.5	34.72
연령표준화	30.3	30.9	28.1	26.0	26.2	29.8	28.55

자료: 중앙자살예방센터, 「국내·외 자살현황 분석」(통계청의 2018 사망원인통계 재구성)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충남에서는 자살예방의 대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충남의 농촌지역 자살 원인 규명을 위한 「충남 자살자 심리사회적 원인조사(부검)와 유가족 지원사업 보고서」(최명민 외, 2014)와 충남의 도시 지역 자살원인 규명을 위한 「지방대도시 자살 원인규명을 위한 다층적 분석 보고서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과 심리사회부검을 중심으로」(최명민 외, 2018)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일부 동의를 받은 자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자살사건 경찰조서를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자살의 원인규명은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첫째, 조사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남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집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자살예방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살충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자살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우울증이 타 지역에 비해 충남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그림 2-1 참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스트레스 대응방식 등을 분석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림 2-1> 전국 등록 정신질환자 분포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이에 충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충남 사회조사 문항에 자살사고, 스트레스 대응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고 그 이유까지 상세히 질문함으로써 자살사고와 관련된 폭넓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사고의 분포와 특성, 자살과 우울의 관계, 그리고 우울의 영향요인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민의 자살충동사고와 관련된 현황 및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둘째, 도민의 자살충동과 우울의 관계, 우울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현재 도민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자원을 살펴본다.

넷째, 분석 내용을 토대로 충청남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 충청도민의 자살충동 경험 실태

1) 자살충동 경험과 영향 요인

자살사고는 다음과 같이 지난 1년간 자살에 대한 충동을 묻는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단, 자살충동의 범위가 넓으므로 조사방식에서 구체적인 자살방법까지 생각한 경우만 포함되도록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충동이 곧바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자살충동을 느끼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경우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살충동사고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방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응답자 25,777명 중 2.8%(722명)가 자살충동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수 등의 요인들보다는 가구소득과 혼인상태, 그리고 직업에서 보다 뚜렷한 자살충동 경험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살충동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으며, 결혼 상태에서는 이혼의 경우에 다른 상태인 경우보다 2-3배 정도 자살충동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서는 무직인

경우가 가장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판매직의 자살충동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대면 서비스에 의한 스트레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2〉 충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별 지난 1년간 자살충동 경험 비중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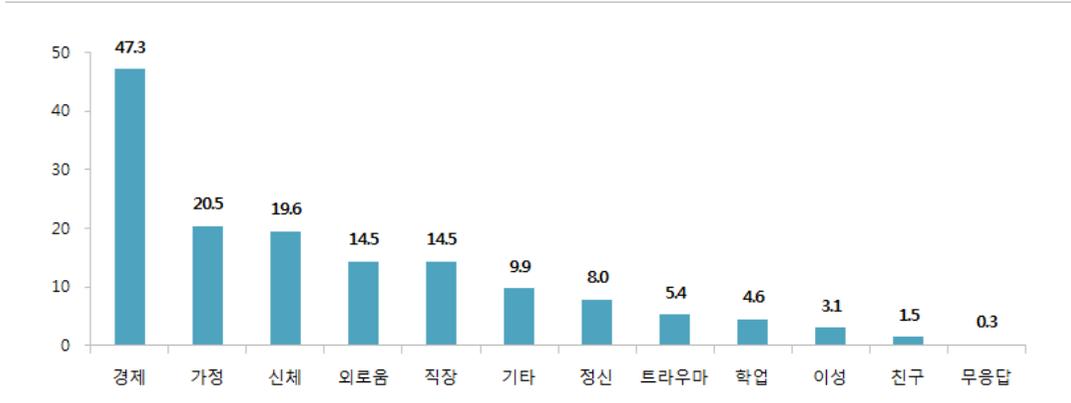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명)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5)
성별	남자	(12,012)	2.3	97.6	0.0	100.0
	여자	(13,765)	3.2	96.8	0.0	100.0
연령	15~19세	(745)	3.8	96.2	0.0	100.0
	20대	(1,473)	2.4	97.6	0.0	100.0
	30대	(2,581)	3.1	96.9	0.0	100.0
	40대	(4,036)	2.7	97.2	0.0	100.0
	50대	(4,773)	2.8	97.2	0.0	100.0
	60세 이상	(12,169)	2.5	97.4	0.0	100.0
학력	초졸 이하	(7,811)	2.8	97.2	0.0	100.0
	중졸 이하	(3,064)	3.0	97.0	0.0	100.0
	고졸 이하	(7,718)	3.2	96.8	0.0	100.0
	대학 이상	(6,967)	2.3	97.7	0.0	100.0
	무응답	(217)	4.8	94.8	0.4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314)	5.1	94.9	0.0	100.0
	100~200만원 미만	(3,030)	3.3	96.7	0.0	100.0
	200~300만원 미만	(2,498)	2.8	97.1	0.1	100.0
	300~400만원 미만	(1,799)	1.9	98.0	0.1	100.0
	400~500만원 미만	(1,352)	1.3	98.7	0.0	100.0
	500만원 이상	(1,948)	1.5	98.5	0.0	100.0
	무응답	(59)	0.0	100.0	0.0	100.0
가구원 수	1인 가구	(4,978)	3.7	96.3	0.1	100.0
	2인 이상 가구	(20,799)	2.6	97.4	0.0	100.0
혼인 상태별	미혼	(3,284)	3.1	96.9	0.0	100.0
	배우자 있음	(17,700)	2.3	97.7	0.0	100.0
	사별	(3,595)	3.4	96.6	0.0	100.0
	이혼	(1,098)	6.2	93.7	0.0	100.0
	무응답	(100)	5.8	94.2	0.0	100.0
직업별	전문/관리	(2,006)	1.9	98.1	0.0	100.0
	사무	(1,371)	2.3	97.7	0.0	100.0
	서비스/판매	(3,018)	3.1	96.8	0.1	100.0
	농어업	(4,324)	1.4	98.6	0.0	100.0
	기능/노무 등	(4,838)	2.0	98.0	0.0	100.0
	직업 없음	(10,200)	3.8	96.2	0.0	100.0
	무응답	(20)	0.0	100.0	0.0	100.0



이러한 특징은 다음 <그림 2-2>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이 답변한 자살충동 사유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자살충동을 느낀 이유로 다른 여타 사유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가정불화 순이었다.

<그림 2-2> 자살충동 경험 사유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이러한 사실은 기존에 알려진 자살사유의 순위와 다소 편차가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자살시도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자살실태조사에서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과적 증상이 전체의 35.1%로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30.3%로 다음 순위로 나타난 바 있으며(서울대·원광대, 2018), 자살자 대상 심리부검에서는 전체 대상자 103명 중 정신과적 문제가 전체의 84.5%가 경험한 문제였으며 그 다음이 직업문제 68.0%, 경제적 문제 54.4%였다(중앙심리부검센터, 2018). 이러한 차이가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와 자살충동 경험자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충남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또는 조사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는 추후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충남의 자살충동 경험자들이 호소하는 1순위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자살충동 유무에 따른 소득과 부채의 변화 정도(①크게 증가 ②약간 증가 ③동일 ④ 약간 감소 ⑤크게 감소)를 살펴보았다. 우선 자살 충동 유무에 따른 소득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³⁾을 실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여기에서 보듯이 자살충동이 ‘없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소득 변화의 평균은 3.038이었으나 자살충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부채 변화 평균은 3.485로서 그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표 2-3> 자살충동 유무에 따른 **소득변화** t 검정 결과

지난 1년간 자살충동	무	유
1년 전과 비교한 소득변화 평균	3.038	3.485
표준편차	0.792	0.972
사례 수	4,838	200
t 통계 값		-6.417
유의확률		0.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다음으로 자살충동 여부에 따른 부채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4와 같다. 자살충동이 '없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부채 변화의 평균은 3.097로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었다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부채 변화의 평균은 2.575로서 상대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채의 증가는 자살충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자살 충동 여부에 대한 **부채변화** t 검정 결과

지난 1년간 자살충동	무	유
1년 전과 비교한 부채변화 평균	3.097	2.575
표준편차	0.851	1.015
사례 수	4,829	200
t 통계 값		7.171
유의확률		0.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 3) 소득, 부채 문항은 가구주 대상 문항으로, 1년 전 대비 응답자 가구의 소득/부채 변화를 조사함
 - 소득변화: ① 크게 증가, ② 약간 증가, ③ 동일, ④ 약간 감소, ⑤ 크게 감소
 - 부채변화: ① 크게 증가, ② 약간 증가, ③ 동일, ④ 약간 감소, ⑤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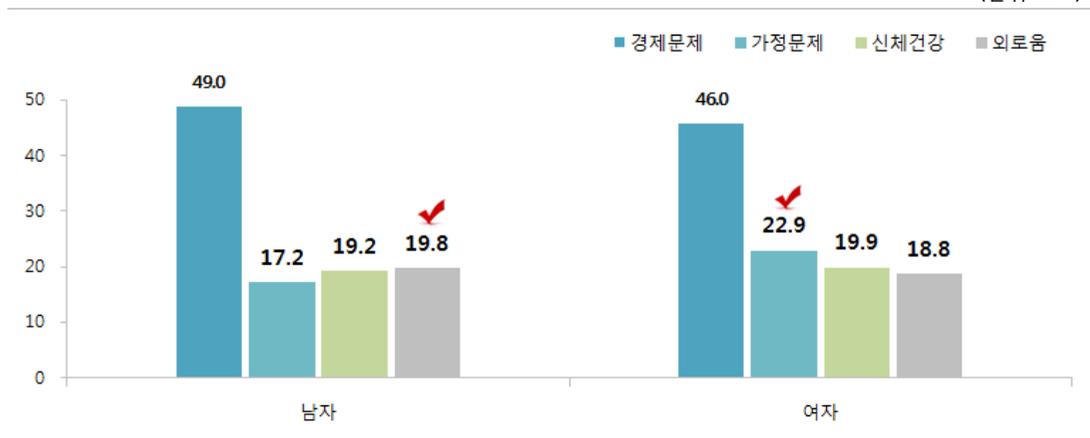


2) 인구집단별 자살충동 사유 비교

다음으로는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자살충동 사유를 비교해 보았다(그림 2-3 참조). 남성과 여성 모두 1순위는 경제문제, 3순위는 신체건강의 문제였으나, 2순위 사유가 여성은 가정문제였던 데에 비하여 남성은 외로움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 2-3> 성별 자살충동경험 사유 비교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다음으로는 연령대별 자살충동 사유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2-5>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로 나타났으나 10대의 경우에는 학업문제가, 60세 이상에서는 신체건강의 문제가 1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불화는 3,4,50대에서 2순위의 문제였고, 실직, 미취업 등 직장문제는 2,30대에서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10대, 20대, 40대, 60대에서는 외로움이 3순위 문제였고 신체건강 상의 문제는 50대 이후의 응답자에게서 순위 안에 드는 주요 문제로 파악되었다. 이는 자살예방사업의 초점이 인생주기별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표 2-5〉 연령대별 자살충동 사유 순위비교

연령대	사례 수	1순위	2순위	3순위
15~19세	(24)	학업문제	경제문제	외로움
20대	(39)	경제문제	직장문제	외로움
30대	(90)	경제문제	가정불화	직장문제
40대	(116)	경제문제	가정불화	외로움
50대	(127)	경제문제	가정불화	신체건강
60세~	(320)	신체건강	경제문제	외로움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다음으로는 각 시군별로 자살충동 사유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2-6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시군에서 1순위의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나 당진시만은 외로움의 문제가 1순위(28.7%)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표 2-6〉 지역별 자살충동 사유 1-3순위 비교

지역	사례 수	1순위	2순위	3순위
천안시	77	경제문제	가정불화	직장문제
공주시	63	경제문제	외로움	신체건강
보령시	38	경제문제	신체건강	가정불화
아산시	30	경제문제	직장문제	외로움
서산시	54	경제문제	신체건강	외로움
논산시	112	경제문제	신체건강	외로움
계룡시	46	경제문제	직장문제	가정불화
당진시	28	외로움	경제문제	가정불화
금산군	42	경제문제	신체건강	정신건강
부여군	39	경제문제	직장문제	신체건강
서천군	29	경제문제	외로움	신체건강
청양군	33	경제문제	신체건강	가정불화
홍성군	39	경제문제	가정불화	직장문제
예산군	42	경제문제	트라우마	신체건강
태안군	44	경제문제	신체건강	외로움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다음으로는 이들 시군을 자살충동 사유에 유형화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 <표 2-7>과 같이 주로 경제적 측면이나 직장문제와 병행하여 가정문제나 대인관계 상의 외로움을 호소한 경우는 천안, 아산, 홍성, 당진, 계룡과 같이 비교적 산업화되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된다면,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호소한 지역은 공주, 서산, 논산, 서천, 태안, 보령, 청양, 금산, 예산 등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이었다. 단 부여는 경제적, 직업적 측면의 문제와 신체적 질병 문제가 동시에 높은 순위에 들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성을 보이고 있었다.

<표 2-7> 지역별 자살충동 사유에 따른 유형화

유형	지역
경제 및 직장문제와 더불어 가정문제나 고립이 주요 문제가 되는 지역	천안, 아산, 홍성, 당진, 계룡
경제문제와 더불어 심신 건강문제와 외로움이 주요 문제가 되는 지역	공주, 서산, 논산, 서천, 태안, 보령, 청양, 금산, 예산
기타 혼합지역	부여

3. 충남도민의 우울경험과 스트레스 대처

일반적으로 우울은 자살의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에서 충남은 타 지역에 비해 우울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살 충동 유무에 따른 우울의 정도(①전혀 우울하지 않았다~⑩매우 우울했다)를 비교해 보았다.¹⁾

<표 2-8> 자살 충동 여부에 대한 **우울정도** t 검정 결과

지난 1년간 자살충동	무	유
우울 정도	3.59	5.98
표준편차	2.198	2.688
사례 수	25,032	714
t 통계 값	28.384	
유의확률	0.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1) 이에 관한 질문은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로서, 이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정서경험에 대한 질문 형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 위의 표 2-8에서 보듯이 자살 충동이 있었던 경우의 우울 정도가 없었던 경우의 우울정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자살충동이 없었던 경우는 우울정도의 평균이 보통(5점 기준) 이하 점수(3.59점)였고 전체 평균이 3.62점으로 나타난 반면, 자살충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우울 평균 점수가 약 6점(5.98점)으로서 상당히 우울한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도민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수는 개인, 가족, 환경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개인 관련 요인에는 연령, 학력, 가구 소득, 신체 건강, 직업 유무가, 가족 관련 요인에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구원 수가, 환경 관련 요인(①매우 나쁘다~⑤매우 좋다)에는 대기 환경 체감도, 녹지 환경 체감도, 절도나 폭력 등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하는 주거환경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미하는 VIF 값은 1.125~2.049로 나타나, 각 변수들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9> 우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변수 개요

분석 활용 변수		
종속변인	우울 정도	①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⑤ 보통 ~ ⑩ 매우 우울했다
개인 측면	연령	① 15~19세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학력	① 초졸이하 ② 중졸이하 ③ 고졸이하 ④ 대학이상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신체 건강	① 매우 나쁘다 ~ ⑩ 매우 좋다
	직업 유무	① 직업 없음 ② 직업 있음
가족 측면	가족관계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 ③ 보통 ~ ⑤ 매우 만족
	가구원 수	① 1인가구 ② 2인가구 이상
환경 측면	대기 환경 체감도	① 매우 나쁘다 ~ ③ 보통이다 ~ ⑤ 매우 좋다
	녹지 환경 체감도	① 매우 나쁘다 ~ ③ 보통이다 ~ ⑤ 매우 좋다
	주거환경_안전	① 매우 불만족 ~ ⑤ 보통 ~ ⑩ 매우 만족

또한, <표 2-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구모형 1에서 연령, 학력, 가구 소득, 신체 건강, 직업 유무 등의 개인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 변수인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은 12.8%이고 회귀모형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 관련 요인들은 모두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 건강이 취약할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우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과 우울은 비례관계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10대의 우울점수가 높게 나타난 현상 때문으로 파악된다.²⁾

연구모형 2에서 가족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R^2 변화량이 .036 상승하여 모형의 설명력이 16.4%로 다소 증가하였고 본 회귀모형 역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 관련 요인들도 개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가족 관계 만족도가 낮고 단독가구인 경우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모형 3에서는 환경 관련 요인으로 대기 환경 체감도, 녹지 환경 체감도, 주거 환경에서의 안전도를 독립변수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2에 비하여 R^2 변화량이 .011 상승하여 모형의 설명력은 17.5%로 소폭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를 최종 모형으로 도출하였다. 개인 관련 요인의 경우, 앞선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연령, 학력, 가구 소득, 신체 건강, 직업 유무 모두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요인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는 이전 모형과 마찬가지로 최종 모형에서도 우울감과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가구원 수는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환경 요인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종 모형에서 추가로 투입된 환경 관련 요인들은 모두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기와 녹지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서 느끼는 안전도도 우울감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별 우울 점수에서 10대 36.75, 20대 34.24, 30대 35.21, 40대 36.23, 50대 36.25, 60대 이상 37.63으로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점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0〉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표준화 계수	B	SE	표준화 계수	B	SE	표준화 계수
개인관련 요인	연령	-.017	.000	-.148***	-.017	.000	-.145***	-.014	.000	-.123***
	학력	-.022	.002	-.011***	-.015	.002	-.007***	-.016	.002	-.008***
	가구 소득	-.057	.001	-.045***	-.061	.001	-.048***	-.054	.001	-.043***
	신체 건강	-.351	.001	-.384***	-.298	.001	-.326***	-.279	.001	-.306***
	직업 유무	-.025	.003	-.006***	-.036	.003	-.008***	-.060	.003	-.013***
가족관련요 인	가족관계 만족도				-.537	.002	-.199***	-.486	.002	-.180***
	가구원 수				-.016	.004	-.003***	-.006	.004	-.001
환경관련요 인	대기 환경 체감도							-.037	.002	-.019***
	녹지 환경 체감도							-.037	.002	-.017***
	주거환경_안전							-.103	.001	-.095***
R ²		.128			.164			.175		
Adjusted R ²		.128			.164			.175		
R ² change					△.036			△.011		
F		53751.415***			50591.689***			38234.845***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결국 도민의 우울감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가족관계 및 주거 환경적 요인과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정신보건 외의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요인에서는 신체건강, 가족 요인에서는 가족관계,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안전 요인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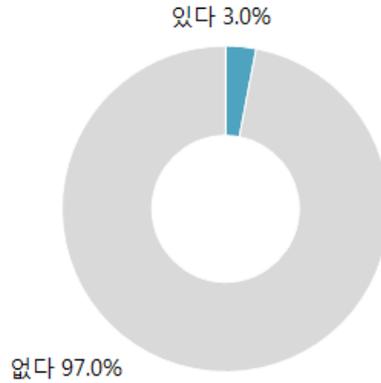
4. 스트레스 대처

그렇다면 충남 도민의 경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도움요청 행동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25,777명 중 전문 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3.0%(77명)에 해당되었다.



<그림 2-4> 스트레스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기관 방문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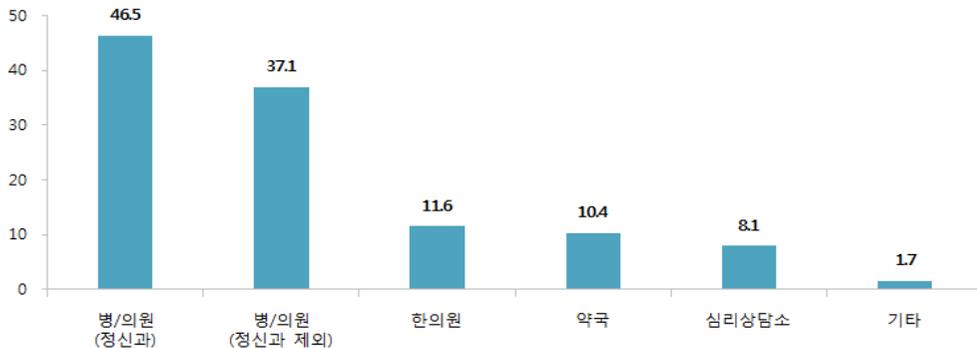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그리고 이들 3% 중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방문한 기관은 정신과,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이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약국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8.1%에 불과하였다. 이는 가용자원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정신과 외의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5> 스트레스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방문한 전문기관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4. 충남 도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과제

1) 취약계층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본 조사에서 자살충동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응답한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였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뿐 아니라 기존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상태 악화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이 좌절하고 극단적 사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예로 다음을 들 수 있겠다.

- ▶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에 경제적 상담 창구 기능 강화 및 홍보
- ▶ 가계 운영 전문가 양성 및 대민 창구 배치와 찾아가는 가계상담 강화

2)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인프라 확충

본 조사 결과 자살충동 경험자들에게 가정불화 및 대인관계 상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외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남의 높은 자살률이나 우울증 비중을 감안할 때 보다 심리사회적 측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 기존 휴먼서비스 인프라(정신과, 일반 의료기관, 약국,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심리상담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특히 신체질환을 다루는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의 심리상담 및 자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지원조치 필요
- ▶ 충청남도 차원의 심리상담과 힐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3) 지역과 인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본 연구에 따르면 자살충동의 사유는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과 같은 자살예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역별로 차별화된 자살예방

- 천안, 아산, 홍성, 당진, 계룡 : 도시 빈곤층과 단독가구 밀집지역 대상 집중 서비스, 미취업자와 실직자 대상 취업 연계 서비스, 가정문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 등 중점
- 공주, 서산, 논산, 서천, 태안, 보령, 청양, 금산, 예산 : 기본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신체건강 취약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 병행, 정신건강 취약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중점
- 부여 등 : 연령층에 따른 복합 서비스 방안 모색

▶ 성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 중장년 남성의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
- 가족문제 상담해 주며 건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

▶ 인생주기별 서비스

- 청소년 : 학업부진, 빈곤, 외톨이 상태의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
- 20~50대 :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정불화 문제 상담하고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자원 확보
- 60대 이후 : 신체건강 문제 있는 빈곤층의 고립된 노인에 중점 두고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4) 환경 및 안전 정책 등 타 정책을 포괄하는 정신건강 정책방향 제시

본 조사를 통해 우울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관계, 그리고 환경과 안전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정신건강과 자살의 문제를 일부 정신보건 관할 부서나 기관의 책임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여성가족 및 환경, 그리고 생활안전등의 정책과 유기적인 연계성 속에서 구현해 가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가 요구된다.

- ▶ 민주적인 가정환경 조성 및 가족관계 지원 서비스 강화
- ▶ 녹지조성 및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정책이 도민의 정신건강과 직결된 요인임을 인식
- ▶ 도민의 정신건강과 직결된 치안 및 안전 확보

참고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2019).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원광대(2018). 자살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중앙심리부검센터(2018). 심리부검 면담결과 보고서 요약본.

최명민·김도윤·김가득(2014). 충남 자살자 심리사회적 원인조사(부검)와 유가족 지원사업 보고서. 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최명민·김도윤·성정숙·이현주(2019). 지방대도시 자살 원인규명을 위한 다층적 분석 보고서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과 심리사회부검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충청남도(2019). 충남 사회조사

대중교통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3. 충남 대중교통 만족도 및 교통수단 이용특성의 차이

요약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iwonchul@cni.re.kr



- 본 연구는 충남 도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교통수단의 이용 특성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충남 15개 시군에서 제공 중인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는 약간만족(5점 만점 중 3.45점)으로 군지역(3.57점)이 시지역(3.38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 수단별로는 시외/고속버스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시내/농어촌버스 서비스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이용 경험자가 적지만 고령자의 만족도가 10점 만점 중 6.9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버스나 택시의 이용 요금 부담이 경감되며, 여가생활, 문화생활, 병원방문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근·통학 시 이용하는 주 교통수단으로 약 50.7%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약 30.0%는 도보로 통행하고, 약 7.0%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보 통행은 군지역(37.4%)이 시지역(25.3%)보다 높고, 고령자(55.1%)가 비고령자(28.1%)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교통환경 중에서 보완·개선이 시급한 1~3순위는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26.6%),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 개선(20.0%), 주차시설 확충(19.2%)이고, 시군 모두 동일하게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을 활용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확보' 및 '고령보행자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위한 보도 정비'를 제안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문재인 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과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³⁾”로 규정하였다.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강조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빈곤, 불평등, 차별 등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민 다수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며 다수에게 이동의 공정성을 제공하고 이동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대중교통정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교통수단 및 이용편의 증대, 대중교통운영 효율화,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사각지대 해소를 계획지표로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충남 15개 시군은 시내·농어촌버스 1,132대로 약 2,177개 노선을 운행하며 도민에게 생활편의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외버스 843대로 약 6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철도수단을 통해 광역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수도 충남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대중교통 정책의 성공여부는 해당 정책을 수혜받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이 발굴되었는지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가 실천과정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9년 충남 사회조사를 통해 충남 시군의 대중교통 정책이 도민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 대중교통 이용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요구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9년 충남 사회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도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교통수단의 이용 특성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사 (2017년)

4) 김미곤 외(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충남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

1)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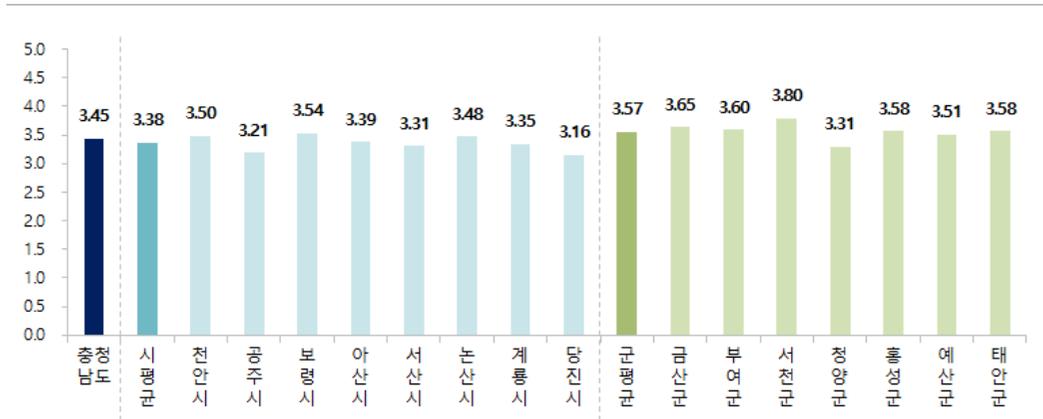
충남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는 5점(매우만족) 만점 중 3.45점으로 보통(3점)과 약간만족(4점)의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지역의 평균은 충청남도 평균인 3.45점보다 약간 낮은 3.38점으로 군지역 평균 3.57점보다 약 0.19점 낮은 수준이다.

충청남도 시군 중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천군(3.80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3.16점)로 조사되었다.

시지역 중 천안시(3.50점), 보령시(3.54점), 아산시(3.39점), 논산시(3.48점)는 시지역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군지역 중 청양군(3.31점)을 제외한 금산군(3.65점), 부여군(3.60점), 서천군(3.80점), 홍성군(3.58점), 태안군(3.58점)이 군지역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시군별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

(단위 : 점)



주: 평가는 5점 만점 리커트척도가 사용되었으며, 1점(매우불만족), 2점(약간불만족), 3점(보통), 4점(약간만족), 5점(매우만족)으로 정량화되었다.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 시군별 교통수단별 서비스 만족도

도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택시, 철도, 기타로 구분하고, 교통수단별 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각 교통수단의 서비스 만족도는 5점(매우만족) 만점 중 3.26점~3.55점으로 보통과 약간만족의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외/고속버스의 서비스 만족도는 5점(매우만족) 만점 중 3.41점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및 택시의 만족도보다 높게 조사 되었고, 시군 지역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농어촌버스의 서비스 만족도는 3.2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군지역 주민들이 시지역 주민들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내/농어촌버스는 부여군 주민의 평가가 3.54점으로 가장 높고, 시외/고속버스, 택시, 철도의 경우에는 서천군 주민의 평가가 각각 3.72점, 3.85점, 3.9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시군별 교통수단별 서비스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택시	철도	기타
충청남도	3.26	3.41	3.40	3.54	3.55
시 지역	3.20	3.39	3.28	3.49	3.56
천안시	3.25	3.44	3.22	3.53	3.62
공주시	3.06	3.26	3.29	2.37	2.95
보령시	3.39	3.61	3.69	3.72	3.58
아산시	3.21	3.42	3.26	3.57	3.52
서산시	3.17	3.44	3.31	1.30	3.25
논산시	3.30	3.43	3.31	3.55	3.27
계룡시	3.16	3.26	3.13	3.58	2.68
시군	3.05	3.27	3.13	1.89	3.00
군 지역	3.37	3.44	3.60	3.68	3.39
금산군	3.44	3.56	3.50	3.14	4.20
부여군	3.54	3.58	3.66	3.62	-
서천군	3.50	3.72	3.85	3.97	3.74
청양군	2.98	3.08	3.45	3.00	-
홍성군	3.38	3.39	3.62	3.71	3.50
예산군	3.31	3.37	3.54	3.70	3.58
태안군	3.51	3.61	3.59	2.41	3.06

주1: 평가는 5점 만점 리커트척도가 사용되었으며, 1점(매우불만족), 2점(약간불만족), 3점(보통), 4점(약간만족), 5점(매우만족)으로 정량화되었다.

주2: 기타는 배, 비행기, 장애인콜택시, 전동차, 전철 등이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3) 시군별 연령별 교통수단별 서비스 만족도

교통수단별 서비스 만족도를 연령대(고령자(65세이상), 비고령자(15~64세))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충남 시군 모두 고령자(65세 이상)가 비고령자(15~64세) 보다 교통수단별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시지역 고령자(65세 이상)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5점(매우만족) 만점 중 3.50점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고속버스보다 높게 나타났고, 시외/고속버스의 서비스 만족도는 3.48점으로 시내/농어촌버스(3.36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시지역 비고령자(15~64세)의 시외/고속버스 서비스 만족도는 3.36점으로 시내/농어촌버스(3.12점)와 택시(3.2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군지역 고령자(65세 이상)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5점(매우만족) 만점 중 3.73점으로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고속버스보다 높게 나타났고, 시외/고속버스의 만족도는 3.54점으로 시내/농어촌버스(3.52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군지역 비고령자(15~64세)의 택시 만족도는 3.48점으로 시내/농어촌버스(3.18점)와 시외/고속버스(3.3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 시군별 연령별 교통수단별 서비스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택시	철도	기타
충청남도	3.26	3.41	3.40	3.54	3.55
15~64세	3.14	3.35	3.28	3.49	3.52
65세이상	3.44	3.51	3.62	3.67	3.65
시지역	3.20	3.39	3.28	3.49	3.56
15~64세	3.12	3.36	3.20	3.46	3.53
65세이상	3.36	3.48	3.50	3.58	3.68
군지역	3.37	3.44	3.60	3.68	3.39
15~64세	3.18	3.35	3.48	3.61	3.35
65세이상	3.52	3.54	3.73	3.81	3.46

주1: 평가는 5점 만점 리커트척도가 사용되었으며, 1점(매우불만족), 2점(약간불만족), 3점(보통), 4점(약간만족), 5점(매우만족)으로 정량화되었다.

주2: 기타는 배, 비행기, 장애인콜택시, 전동차, 전철 등이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4)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만족도

지난 1년(2018.4.22~2019.4.21) 동안 충남 15개 시군에서 대중교통 노선이 적거나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에서 저렴하게 제공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마을택시, 마중택시, 섬김택시, 행복택시, 효도택시, 희망택시 등)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25,777명의 응답자 중 약 1.9%에 해당되는 481명만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지역은 응답자 15,316명 중 2.1%에 해당하는 327명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시지역 중에서는 아산시의 이용경험 점유율이 0.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은 10,461명 중 1.5%에 해당하는 154명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군지역 중에서는 금산군의 이용경험 점유율이 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시군별 수요응답형교통 이용경험 점유율

(단위 : 명, %)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결측치(무응답)		합계
	빈도(명)	점유율(%)	빈도(명)	점유율(%)	빈도(명)	점유율(%)	
충청남도	481	1.9	25,243	97.9	53	0.21	25,777
시 지역	327	2.1	14,985	97.8	4	0.03	15,316
천안시	29	0.2	2,680	17.5			2,709
공주시	19	0.1	1,604	10.5	1	0.01	1,624
보령시	10	0.1	1,658	10.8			1,668
아산시	141	0.9	2,397	15.7			2,538
서산시	27	0.2	1,796	11.7			1,823
논산시	46	0.3	1,693	11.1	1	0.01	1,740
계룡시	53	0.3	1,430	9.3	2	0.01	1,485
당진시	2	0.0	1,727	11.3			1,729
군 지역	154	1.5	10,258	98.1	49	0.47	10,461
금산군	60	0.6	1,471	14.1			1,531
부여군	5	0.0	1,455	13.9			1,460
서천군	24	0.2	1,524	14.6	2	0.02	1,550
청양군	18	0.2	1,534	14.7			1,552
홍성군	4	0.0	1,575	15.1			1,579
예산군	24	0.2	1,532	14.6			1,556
태안군	19	0.2	1,167	11.2	47	0.45	1,233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수요응답형 교통 이용경험을 연령대(고령자(65세이상), 비고령자(15~64세))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시지역은 응답자 15,316명 중 고령자의 이용 경험율이 1.1%, 비고령자의 경험율이 1.0%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지역은 응답자 10,461명 중 65세이상 고령자의 이용 경험율이 0.9%로 비고령자(15~64세) 0.6%보다 약 0.3%p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연령별 수요응답형교통 이용경험 점유율

(단위 : 명, %)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 없음		결측치(무응답)		합계
	빈도(명)	점유율(%)	빈도(명)	점유율(%)	빈도(명)	점유율(%)	
충청남도	481	1.9	25,243	97.9	53	0.21	25,777
15~64세	222	0.9	16,221	62.9	22	0.09	16,465
65세이상	259	1.0	9,022	35.0	31	0.12	9,312
시지역	327	2.1	14,985	97.8	4	0.03	15,316
15~64세	158	1.0	10,797	70.5	3	0.02	10,958
65세이상	169	1.1	4,188	27.3	1	0.01	4,358
군지역	154	1.5	10,258	98.1	49	0.47	10,461
15~64세	64	0.6	5,424	51.8	19	0.18	5,507
65세이상	90	0.9	4,834	46.2	30	0.29	4,954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충남 15개 시군에서 제공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30점으로 나타났고, 65세이상 고령자의 만족도가 6.95점으로 비고령자의 만족도 5.56점보다 약 1.39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지역의 만족도 6.53점으로 시지역 6.20점보다 약 0.3점 높고, 시군 모두 고령자의 만족도가 비고령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시군별 연령별 수요응답형교통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만족도 점수 영역											평균	합계
	0	1	2	3	4	5	6	7	8	9	10		
충청남도	0	15	26	81	104	655	318	294	352	405	770	6.30	479
15~64세	0	13	22	39	76	315	138	133	184	135	180	5.56	222
65세이상	0	2	4	42	28	340	180	161	168	270	590	6.95	257
시지역	0	9	20	54	60	515	228	175	184	306	470	6.20	326
15~64세	0	9	16	33	60	235	108	70	104	108	110	5.40	158
65세이상	0	0	4	21	0	280	120	105	80	198	360	6.95	168
군지역	0	6	6	27	44	140	90	119	168	99	300	6.53	153
15~64세	0	4	6	6	16	80	30	63	80	27	70	5.97	64
65세이상	0	2	0	21	28	60	60	56	88	72	230	6.93	89

주1: 만족도는 점수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평가됨

주2: 결측치(3명)는 합계에서 제외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경험해 본 이용자의 만족도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농촌형교통모델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 지역은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으로 지역주민은 버스나 택시의 이용요금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고, 집에서 정류장까지의 소요시간과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 여가생활, 문화생활, 병원방문 등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충남 수요응답형교통(농촌형교통모델) 사업효과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변화정도
집에서 정류장까지 소요시간 변화	27.6분	6.5분	-21.1분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대기시간의 변화	18.1분	6.1분	-12.0분
교통거점(버스터미널 등)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의 변화	22.2분	15.0분	-7.2분
서비스거점(병원,은행,공공기관,장터 등)까지 이동 소요시간의 변화	12.6분	10.3분	-2.3분
버스 또는 택시 이용요금 변화	7,511원	989원	-6,522원
짐이나 물건 나르기에 대한 편의성	50.7점	93.6점	42.9점
여가생활, 문화생활, 및 병원방문 등 삶의질 변화	44.3점	94.4점	50.1점

주: 조사대상은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의 이용자 72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촌형교통모델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재구성(충남 영역만 발췌)

그러나, 여전히 충남 시군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많아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광역자치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현황

(단위 : 개, %)

구분	시지역 (법정동 지역)			군지역 (법정리 지역)		
	동지역(개)	취약지역(개)	취약분포(%)	리지역(개)	취약지역(개)	취약분포(%)
강원도	179	110	61.5	1,144	454	39.7
충청북도	136	68	50.0	1,381	617	44.7
충청남도	124	66	53.2	1,971	990	50.2
전라북도	251	133	53.0	1,463	716	48.9
전라남도	192	98	51.0	2,549	1,078	42.3
경상북도	295	129	43.7	2,784	1,226	44.0
경상남도	348	177	50.9	1,832	809	44.2
제주특별자치도	62	39	62.9	122	77	63.1
합계	1,587	820	51.7	13,246	5,967	45.0

주: 취약지역은 공간적 접근성 (법정동은 400m, 법정리는 800m 이내에 버스정류장 존재 여부)과 시간적 접근성 (법정동은 시간당 2회, 법정리는 일 2회 이상 대중교통 운행 여부) 중에서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달하는 지역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2018.12, 2018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 보고서, p.264~274, 재구성

3. 충남 교통수단 이용특성

1) 시군별 주 이용교통수단

충남 도민의 약 50.7%는 통근·통학 시 자가용을 이용하고, 약 30.0%는 도보를, 약 7.0%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지역의 경우에는 자가용(53.9%), 도보(25.3%), 버스(8.5%), 통근·통학차량(6.2%), 자전거(1.7%), 오토바이(1.7%) 순으로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경우에는 자가용(45.7%), 도보(37.4%), 버스(4.6%), 오토바이(4.3%), 자전거(2.8%), 통근·통학차량(2.5%) 순으로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지역에서는 군지역에 비해 자가용, 버스, 통근통학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군지역에서는 시지역에 비해 도보, 오토바이, 자전거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지역과 군지역 모두 통근·통학 시 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시군별 주 이용교통수단

(단위 : %)

구분	자가용	도보	버스	통근통학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택시	전철	철도	기타	합계
충청남도	50.7	30.0	7.0	4.8	2.7	2.1	0.5	0.4	0.2	1.5	100.0
시 지역	53.9	25.3	8.5	6.2	1.7	1.7	0.6	0.7	0.3	1.1	100.0
천안시	55.4	17.7	12.4	8.8	0.5	1.0	1.0	2.0	0.6	0.6	100.0
공주시	46.5	34.7	8.0	3.2	3.0	1.9	0.2	0.0	0.0	2.6	100.0
보령시	53.8	30.8	7.0	2.1	3.0	1.9	0.2	0.0	0.2	0.9	100.0
아산시	57.8	17.9	10.7	7.4	1.1	1.5	0.9	1.5	0.7	0.5	100.0
서산시	47.7	33.3	6.2	8.8	1.4	1.1	0.6	0.0	0.0	0.9	100.0
논산시	51.4	29.3	5.1	5.3	2.5	4.5	0.6	0.0	0.5	0.7	100.0
계룡시	67.2	16.4	9.6	3.8	0.2	0.9	0.9	0.6	0.1	0.1	100.0
군 지역	45.7	37.4	4.6	2.5	4.3	2.8	0.4	0.0	0.1	2.3	100.0
당진시	51.6	29.1	5.7	6.8	2.5	1.5	0.3	0.0	0.2	2.2	100.0
금산군	45.0	37.7	6.1	2.6	3.2	2.7	0.6	0.1	0.2	1.8	100.0
부여군	45.9	36.5	4.4	1.8	4.5	2.8	0.1	0.0	0.0	4.0	100.0
서천군	47.7	32.4	3.9	2.3	6.6	5.1	0.4	0.0	0.2	1.4	100.0
청양군	45.7	38.8	2.9	1.9	4.7	3.4	0.1	0.1	0.0	2.4	100.0
홍성군	48.4	37.1	5.0	3.0	3.0	2.0	0.5	0.0	0.2	0.7	100.0
예산군	40.6	42.1	5.2	3.3	4.6	1.2	0.4	0.0	0.0	2.7	100.0
태안군	48.2	35.6	4.0	2.7	1.6	1.9	0.3	0.0	0.3	5.4	100.0

주1: 교통수단선택은 복수 응답결과를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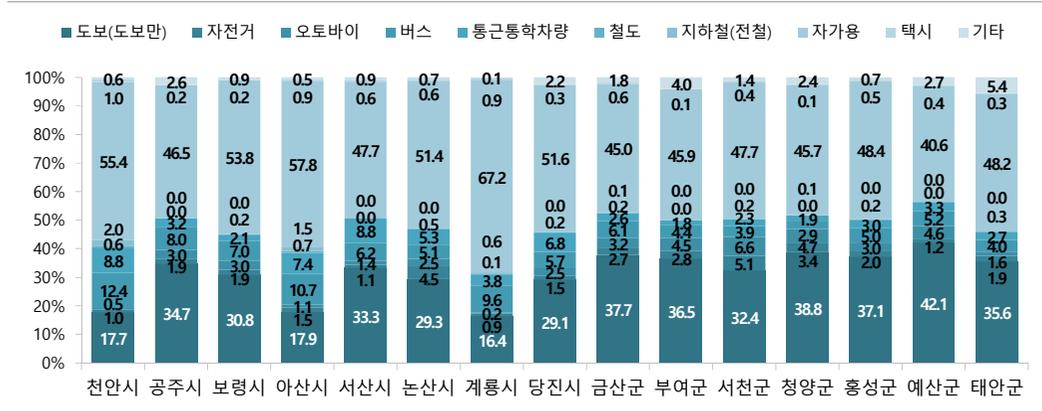
주2: 기타는 트럭, 경운기, 농기계, 중장비, 전동킥보드, 가족/지인 차량 등이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통근·통학 시 자가용 의존도가 충청남도 평균 50.7%를 상회하는 시군은 계룡시(67.2%), 아산시(57.8), 천안시(55.4), 보령시(53.8), 당진시(51.6%), 논산시(51.4%)로 분석되었다. 도보 의존도가 충청남도 평균 30.0%를 상회하는 시군은 예산군(42.1%), 청양군(38.8%), 금산군(37.7%), 홍성군(37.1%), 부여군(36.5%), 태안군(35.6%), 서천군(32.4%) 7개 군지역과 공주시(34.7%), 서산시(33.3%), 보령시(30.8%)로 나타났다. 버스 의존도가 충청남도 평균 7.0%를 상회하는 시군은 천안시(12.4%), 아산시(10.7%), 계룡시(9.6%), 공주시(8.0%), 보령시(7.0%)로 분석되었다.

<그림 3-2> 시군별 주 이용교통수단 점유율

(단위 : 점)



주1: 교통수단 선택은 복수 응답결과를 반영하였음

주2: 기타는 트럭, 경운기, 농기계, 중장비, 전동킥보드, 가족/지인 차량 등이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 시군별 연령별 주 이용교통수단

시지역 비고령자(15~64세)는 통근·통학 시 약 59.8%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약 19.1%는 도보를, 약 9.3%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지역 고령자(65세 이상)는 통근·통학 시 약 55.6%가 도보를 이용하고, 약 24.9%는 자가용을, 5.6%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지역 비고령자(15~64세)는 통근·통학 시 약 57.9%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약 28.1%는 도보를, 약 5.2%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 고령자(65세 이상)는 통근·통학 시 약 55.1%가 도보를 이용하고, 약 22.4%는 자가용을, 8.4%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지역과 군지역 모두 비고령자(15~64세)는 통근·통학 시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고령자(65세 이상)는 도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수단 부담률은 고령자(65세 이상)보다 비고령자(15~64세)에서 높게 나타났고,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수단 부담률은 비고령자(15~64세)보다 고령자(65세 이상)에게 높게 조사되었다.



<표 3-9> 시군별 연령별 주 이용교통수단

(단위 : %)

구분	자가 용	도보	버스	통근 통학 차량	오토 바이	자전 거	택시	전철	철도	기타	합계
충청남도	50.7	30.0	7.0	4.8	2.7	2.1	0.5	0.4	0.2	1.5	100.0
15~64세	59.2	22.1	7.9	5.7	1.3	1.4	0.6	0.5	0.3	1.1	100.0
65세이상	23.5	55.3	3.9	1.9	7.2	4.6	0.3	0.1	0.0	3.1	100.0
시지역	53.9	25.3	8.5	6.2	1.7	1.7	0.6	0.7	0.3	1.1	100.0
15~64세	59.8	19.1	9.3	7.1	0.9	1.3	0.7	0.8	0.4	0.7	100.0
65세이상	24.9	55.6	4.6	1.8	5.6	4.1	0.3	0.2	0.0	2.8	100.0
군지역	45.7	37.4	4.6	2.5	4.3	2.8	0.4	0.0	0.1	2.3	100.0
15~64세	57.9	28.1	5.2	2.8	2.1	1.6	0.4	0.0	0.1	1.7	100.0
65세이상	22.4	55.1	3.4	2.0	8.4	5.1	0.3	0.0	0.0	3.3	100.0

주1: 교통수단선택은 복수 응답결과를 반영하였음

주2: 기타는 트럭, 경운기, 농기계, 중장비, 전동킥보드, 가족/지인 차량 등이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4. 충남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항

1) 충남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항

충남의 교통환경 중 가장 보완·개선해야 될 분야는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의 확충으로 약 26.6%의 도민이 선호하고, 다음으로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 개선이 20.0%, 주차시설 확충 19.2%,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저상버스 확충 등) 12.6% 순으로 나타났다. 시지역과 군지역 모두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여기고 있으며, 시지역에서는 주차시설 확충을 보행환경 개선보다 우선적으로, 군지역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주차시설 개선 보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 충남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항

(단위 : %)

개선 사항	충청남도	시지역	군지역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	26.2	25.7	27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 개선	20.0	18.2	22.6
주차시설 확충	19.2	20.7	17.1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 (저상버스 확충 등)	12.6	12.5	12.8
대중교통요금 인하 및 서비스 개선	9.7	9.9	9.4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교육 확대	4.6	3.9	5.5
교통정보 안내체계 개선(표지판, 신호등 등)	4.2	4.2	4.2
교통체증 해소	2.6	4	0.6
기타	0.8	0.8	0.9
합계	100.0	100.0	100.0

주: 기타는 교통비 지원, 지하철 건설, 도로포장, 보도블럭 철거, 운전기사 친절도 개선, 정류장 시설 개선, 개선 필요 없음 등이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 시군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항

충남 시지역의 교통환경 중 가장 보완·개선해야 될 분야는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25.7%), 주차시설 확충(20.7%),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 개선(18.2%) 등으로 나타났다. 시지역 중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던 지역은 계룡시(35.2%), 아산시(26.6%), 논산시(26.5%) 등으로 조사되었고,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았던 지역은 논산시(25.1%), 보령시(22.7%), 천안시(22.0%) 등으로 조사되었다.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지역은 서산시(21.8%), 당진시(21.7%), 공주시(20.3%)로 조사되었고,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 요구가 높은 지역은 아산시(15.3%), 보령시(14.2%), 공주시(14.0%)로 조사되었다.



<표 3-11> 시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항

(단위 : %)

개선 사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시지역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	24.0	24.5	21.8	26.6	25.3	26.5	35.2	23.7	25.7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 개선	16.8	20.3	19.4	14.2	21.8	17.0	16.9	21.7	18.2
주차시설 확충	22.0	16.5	22.7	19.2	20.1	25.1	18.0	21.7	20.7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 (저상버스 확충 등)	10.8	14.0	14.2	15.3	10.4	9.7	13.6	11.7	12.5
대중교통요금 인하 및 서비스 개선	10.0	10.8	12.6	8.6	11.6	7.9	7.7	10.0	9.9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교육 확대	2.7	3.5	4.1	5.1	2.6	5.8	3.8	4.1	3.9
교통정보 안내체계 개선 (표지판, 신호등 등)	2.9	5.8	3.2	4.4	4.5	4.9	3.6	5.0	4.2
교통체증 해소	9.4	3.7	1.6	6.0	3.1	1.5	0.5	2.0	4.0
기타	1.3	0.9	0.4	0.7	0.6	1.5	0.6	0.3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는 교통비 지원, 지하철 건설, 도로포장, 보도블럭 철거, 운전기사 친절도 개선, 정류장 시설 개선, 개선 필요 없음 등이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충남 군지역의 교통환경 중 가장 보완·개선해야 될 분야는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27.0%),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 개선(22.6%), 주차시설 확충(17.1%) 등으로 나타났다. 군지역 중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던 지역은 서천군(34.1%), 금산군(29.6%), 청양군(29.3%) 등으로 조사되었고,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지역은 태안군(32.1%), 부여군(24.2%), 예산군(23.6%)으로 조사되었다.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았던 지역은 홍성군(25.2%), 부여군(23.9%), 서천군(21.2%) 등으로 조사되었고,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 요구가 높았던 지역은 금산군(17.2%), 홍성군(16.7%), 청양군(13.6%)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군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항

(단위 : %)

개선 사항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군지역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 확충	29.6	16.5	34.1	29.3	23.4	27.4	28.2	27.0
보행환경(보도 확보 등) 개선	23.1	24.2	19.6	19.4	18.7	23.6	32.1	22.6
주차시설 확충	11.5	23.9	21.2	12.2	25.2	15.6	7.7	17.1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개선 (저상버스 확충 등)	17.2	11.5	8.7	13.6	16.7	11.3	9.7	12.8
대중교통요금 인하 및 서비스 개선	9.1	9.5	8.8	15.2	6.8	10.0	5.2	9.4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교육 확대	4.7	7.8	3.8	3.2	2.9	6.5	11.5	5.5
교통정보 안내체계 개선 (표지판, 신호등 등)	3.4	4.9	2.6	7.1	3.6	4.2	3.7	4.2
교통체증 해소	0.5	0.9	0.3	0.0	1.4	0.3	0.7	0.6
기타	0.9	0.8	1.0	0.0	1.4	0.9	1.2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는 교통비 지원, 지하철 건설, 도로포장, 보도블럭 철거, 운전기사 친절도 개선, 정류장 시설 개선, 개선 필요 없음 등이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5. 결론

충남 15개 시군은 시내·농어촌버스 1,132대로 약 2,177개 노선을 운행하며 도민에게 생활편의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외버스 843대로 약 6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철도수단을 통해 광역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 도민들은 약간만족이라는 점수(5점 만점 중 3.45점)를 부여하였다. 교통수단별로는 시외/고속버스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서비스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충남 15개 시군은 충남도 관내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정책 추진 시 통행특성과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의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버스 이용율은 약 7.0% 수준이지만 약 50.7%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약 30.0%는 도보로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은 비고령자와 시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율이 높은 반면 도보는 65세이상 고령자와 군지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보 통행을 장려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고령자와 군지역에서 도보 통행 비율이 높은 사실을 감안하면, 고령자의 보행편의와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를 확충하거나 시설 정비가 요구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의 확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노선 및 운행횟수의 부족은 도심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용자가 없어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는 대형버스의 공급보다는 소형버스 또는 택시형으로 이동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도심외곽지역을 대상으로 버스운행노선이 감축/감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버스의 기능을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 확보가 필요하다. 수요응답형 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버스와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함도 발생되는데 대중교통 서비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환승 불편에 대한 이용자의 배려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2018). 2018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 보고서.
김미곤 외(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 농촌형교통모델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충청남도(2019). 충남 사회조사

돌봄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4. 충남 양육자 특성별 아동돌봄 현황 및 정책욕구

요약

최은희

충청남도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정책연구팀장
swpr2431@cnwf.or.kr



- 본 연구는 충남 사회조사 결과에 기초한 충남 미취학 자녀 및 아동의 돌봄 실태와 정책적 욕구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우선, 미취학 자녀 양육방법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점차적으로 가정양육보다 시설보육의 비율이 높아짐. 이러한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설보육시 무엇보다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도 지속적임
- 2019년도 충남 사회조사에 영유아 자녀를 위한 보조양육자 유무와 아동 돌봄에 대한 인식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본 자료는 기존 및 신규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변수로 분석함
- 조사결과, 미취학자녀 보육방법으로 동 지역보다 읍·면지역의 가정양육이 많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어린이집을 보내는 비율이 높음. 심리·정서적으로 긍정적일수록, 사람에게 대해 신뢰하고,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현재 양육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
- 부모 이외에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16.6%며, 이는 주로 응답자의 부모나 친인척임. 동 지역,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에 불만족한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보수일수록 보조양육자가 있는 비율이 높았음
-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동 지역일수록,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일 수록 어렵다고 응답함. 정책적 요구로 돌봄 비용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면 지역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관에 대한 욕구가 높음. 심리·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우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종합적인 상담'을 원하고 있음
- 아동양육시 다양한 '돌봄·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며,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음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충청남도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도록 노력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⁵⁾’을 구현하고 있다.

육아가 행복한 환경과 사회적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의 특성을 분석한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양육자의 지역적 특성,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좋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다룰 수 있는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잘 다루는지 등에 대한 관심으로 양육실태, 만족, 욕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 아동 돌봄 분야를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내용

「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 중 아동 돌봄은 취학 전 자녀 돌봄 실태와 취학 전 자녀를 포함한 아동 돌봄에 대한 영역이다. 이는 세 영역으로 첫째, 미취학 자녀 양육방법 및 만족도 둘째, 미취학 자녀 양육시 보조양육자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를 포함한 아동 돌봄과 관련한 실태와 수요다.

아동 돌봄에 대한 실태 및 욕구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하여 「2019 충청남도 사회조사」에서 조사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변수는 세 영역으로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돌봄자의 심리·정서적 특성, 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5) 자료 :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yangsj/content.do?mnu_cd=PRGMENU00074&scrn_typ_cd=0001

충청남도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비전으로 5대 목표, 11대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대한 분야로 추진 중임.

인구사회적 특성은 응답자의 성별과 거주지 유형(읍·면·동), 돌봄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우울정도, 스트레스 인지 정도, 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다. 사회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귀속계층인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정치적 성향,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다.

<표 4-1> 아동 돌봄 조사결과 분석 독립변수

(단위 : 명, %, 점)

분석 활용 변수		원자료 척도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여	① ② ▶성별 ① 남 ② 여
	거주지	동 읍 면	① ② ③ ▶주소 기입식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중 하	① ② ③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① 상 ② 중 ③ 하
	정치적 성향	진보 중도 보수	①+② ③ ④+⑤ ▶주관적 사회정치적 성향 (5점척도) ① 진보~ ③ 중도~ ⑤ 보수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일반인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 ① 신뢰할 수 있다 ② 신뢰할 수 없다 ③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④ 모르겠다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①~④ ⑤ ⑥~⑩ ▶어제의 우울 정도 (11점 척도) ①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⑤ 보통 ~ ⑩ 매우 우울했다
	스트레스	비인지 보통 인지	①~④ ⑤ ⑥~⑩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정도 (11점 척도) ① 전혀 느끼지 않았다 ~ ⑤ 보통 ~ ⑩ 대단히 많이 느꼈다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①~④ ⑤ ⑥~⑩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정도 (11점 척도)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⑤ 보통 ~ ⑩ 매우 만족한다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해당 없음	①+② ③ ④+⑤ ⑥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 (5점 척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해당 없음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 충남 미취학 아동 현황

1) 미취학 아동 양육방법 및 만족도

(1) 미취학 아동 양육방법

정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충청남도도 아래 상자에 제시된 문항으로 2013년, 2016년, 2019년에 공통적으로 조사하였다.

문항 미취학 자녀의 낮 시간 동안의 주된 보육방법은 무엇입니까?

지난 6년간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주된 방법 중 가족구성원(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나 친인척)이 양육하는 가정양육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은 2013년 40.4%에서 2019년 53.2%로 증가하였으며, 유치원은 24.4%에서 21.7%로 감소하였다. 해마다 응답선택지를 수정하여 학원, 공동육아 등 결과는 비교할 수 없다.

<표 4-2> 미취학자녀 양육방법 추이(3개년)

(단위 : 명,%)

구분	2013	2016	2019
어린이집(놀이방)	40.4	52.3	53.2
본인이나 배우자	29.4	22.6	22.0
유치원	24.4	22.1	21.7
부모님이나 친인척	4.1	2.7	2.2
개인 등 베이비시터	0.5	-	0.6
학원	-	-	0.3
공동육아	-	0.1	-
기타	-	0.2	-
무응답	1.1	-	0.1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3, 2016, 2019)

2019년 충남사회조사결과, 충남도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22.0%는 주로 부모(본인이나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53.2%, 유치원 21.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인 동 지역은 읍·면 지역에 비해 가정양육(본인이나 배우자/부모님이나 친인척) 비율이 낮고, 시설보육인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원 이용률이 높았다.

주관적 귀속계층인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위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 중위나 하위계층으로 인식하는 집단보다 가정양육 비율이 높고, 시설보육(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이 낮았다.

<표 4-3> 미취학자녀 양육방법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이나 친인척	베이비 시터 등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무응답	
전체		1,317	22.0	2.2	0.6	53.2	21.7	0.3	0.1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1,153	22.7	1.9	0.7	52.5	21.8	0.3	0.1
		여	164	13.9	5.0	0.0	59.8	20.8	0.6	0.0
	거주지	동	566	18.2	1.7	0.9	53.5	25.2	0.4	0.0
		읍	364	26.6	3.5	0.4	52.5	17.0	0.0	0.0
		면	387	25.8	1.9	0.0	53.1	18.6	0.2	0.4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	상	29	31.4	3.3	0.0	50.7	14.6	0.0	0.0
		중	1,007	21.6	2.3	0.8	51.8	23.1	0.3	0.1
		하	281	22.5	1.8	0.0	58.8	16.6	0.3	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 미취학 아동 양육방법 만족도

미취학 자녀의 양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3개년 비교한 결과, '만족한다'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일정한 증감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항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미취학 자녀의 양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013년 6.66점에서 2019년 7.18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4-4> 미취학자녀 양육방법 만족도 추이(3개년)

(단위 : 명, %, 점)

구분		2019	2016	2013
만족도	불만족	6.5	5.6	6.6
	보통	26.5	30.1	28.9
	만족	67.0	64.3	63.5
평균(10점만점)		7.18	6.91	6.66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3, 2016, 2019)

2019년도 미취학 자녀의 양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성별로 여성(6.88점)보다는 남성(7.21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 읍 지역(7.28점)의 거주자 만족도가 높고, 면 지역(7.02점)의 만족도가 낮았다.

심리·정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고, 삶에 만족하며,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양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우울하지 않을수록 양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우울함에 대해 보통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양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보수에 가까울수록 만족하고 있으며,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 만족하고 있다.

〈표 4-5〉 미취학자녀 양육방법 만족도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만족도			평균 (10점만점)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304	6.5	26.5	67.0	7.18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1,141	6.6	25.6	67.8	7.21
		여	163	6.1	35.3	58.5	6.88
	거주지	동	563	5.2	28.9	65.8	7.20
		읍	358	7.5	21.5	71.0	7.28
		면	383	8.7	26.3	65.0	7.02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도	그렇지 않다	761	6.4	23.6	70.0	7.33
		보통	364	4.9	34.0	61.1	6.96
		그렇다	179	11.1	23.2	65.7	6.99
	스트레스	비인지	427	6.1	18.0	75.9	7.52
		보통	483	3.9	31.7	64.4	7.16
		인지	391	10.6	29.5	59.8	6.82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108	21.9	21.5	56.6	6.06
		보통	370	6.6	37.2	56.2	6.86
		그렇다	825	4.6	22.2	73.1	7.46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불만족	10	27.7	17.6	54.7	5.48
		보통	269	8.1	39.7	52.2	6.68
		만족	1,022	5.9	23.0	71.1	7.33
		해당 없음	2	0.0	0.0	100.0	8.75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29	7.9	33.5	58.6	6.89
		중	996	5.3	26.1	68.7	7.27
		하	279	11.4	27.5	61.1	6.85
	정치적 성향	진보	391	9.7	21.6	68.7	7.09
		중도	752	4.6	30.1	65.3	7.22
		보수	160	7.5	21.7	70.9	7.26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228	7.2	17.8	74.9	7.57
		신뢰할 수 없다	96	7.3	27.0	65.7	7.34
		경우에 따라 다르다	955	6.4	28.2	65.4	7.08
		모르겠다	23	0.0	29.5	70.5	7.23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3) 미취학 아동 시설양육 선택시 고려사항

문항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3개년 비교한 결과, 우선 고려사항은 매년 같았으며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접근성'에 대해 2013년 26.1%, 2016년 29.8%, 2019년 31.8%로 점차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주위의 평가, 시설유형, 보호자 부담액 등 선호도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4-6> 미취학자녀 시설보육선택 고려요인(3개년)

(단위 : 명, %)

구분	2013	2016	2019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36.6	31.5	36.6
접근성	26.1	29.8	31.8
주위의 평가	15.0	15.2	11.2
시설유형	10.6	12.0	10.0
보호자 부담액	5.0	2.8	3.8
보육시간연장	-	-	2.5
기타	2.4	4.0	2.5
시설평가인증여부	4.1	4.6	1.6
무응답	0.3	-	0.1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3, 2016, 2019)

2019년 미취학 자녀를 위한 시설보육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36.6%), 접근성(31.8%), 주위의 평가(11.2%), 시설유형(10.0%)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따라 우울하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없으며, 삶에 대해 만족하고,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 경우 시설보육 선택에 있어 전체 응답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삶에 불만족이거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보호자의 부담액'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족관계에 불만족인 경우 '보육시간 연장'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른 시설보육 선택 고려사항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일반인에 대해 신뢰할수록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우선시 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보호자 부담액'을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이나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접근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미취학자녀 보육시설 선택 시 고려요인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주위의 평가	시설 유형(국·공립, 민간 등)	보호자 부담액	보육 시간 연장	기타	시설 평가 인 증 여부	무응답
전체			790	36.6	31.8	11.2	10.0	3.8	2.5	2.5	1.6	0.1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680	36.4	32.5	11.1	10.0	3.5	2.1	2.7	1.5	0.1
		여	110	37.8	25.5	12.1	10.0	5.8	5.9	0.3	2.4	0.0
	거주지	동읍	357	38.8	30.9	11.4	8.2	4.6	2.4	2.6	1.1	0.0
		면	213	32.2	33.3	12.0	11.0	2.2	2.1	3.3	3.4	0.4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도	그렇지 않다	454	37.2	31.6	12.1	10.5	2.7	2.4	1.6	1.7	0.1
		보통	221	36.5	32.3	6.8	10.9	5.6	2.4	3.7	1.6	0.2
		그렇다	115	33.9	31.5	16.0	5.7	4.5	3.4	3.8	1.2	0.0
	스트레스	비인지	259	40.2	30.9	10.5	10.5	1.9	2.4	0.8	2.8	0.0
		보통	287	37.1	32.8	12.8	7.9	3.9	2.9	1.6	0.9	0.2
		인지	241	31.8	30.9	10.0	12.3	5.9	2.2	5.7	1.1	0.2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67	19.2	40.1	11.5	7.5	8.8	5.2	6.3	1.5	0.0
		보통	220	42.2	32.3	7.4	10.0	4.4	1.3	1.8	0.5	0.0
		그렇다	502	36.3	30.6	12.8	10.3	2.9	2.7	2.2	2.1	0.2
	전반적 가족 관계 만족도	불만족	5	21.2	39.5	0.0	0.0	0.0	23.7	15.6	0.0	0.0
		보통	167	37.9	41.5	8.0	4.6	5.6	0.5	1.8	0.0	0.0
		만족	616	36.5	29.1	12.1	11.4	3.3	2.9	2.5	2.1	0.1
해당 없음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13	46.4	10.9	11.0	19.6	0.0	7.9	0.0	4.1	0.0
		중	611	36.9	33.4	11.4	9.8	2.5	1.9	2.6	1.4	0.1
		하	166	34.8	26.4	10.3	10.2	8.9	4.8	2.2	2.5	0.0
	정치적 성향	진보	238	41.1	27.8	11.5	9.2	2.9	4.5	2.6	0.3	0.1
		중도	449	36.1	31.3	11.5	10.9	3.3	1.8	2.7	2.3	0.0
		보수	102	26.4	44.5	8.9	8.3	8.0	0.6	1.0	1.8	0.5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142	48.5	27.2	7.3	8.3	4.8	1.2	1.9	0.9	0.0
		신뢰할 수 없다	60	31.6	33.7	13.8	6.2	1.8	9.0	2.7	1.3	0.0
		경우에 따라 다르다	572	34.1	32.8	11.8	11.0	3.8	2.0	2.6	1.8	0.1
모르겠다		14	54.4	26.1	11.0	4.2	0.0	0.0	0.0	4.2	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 미취학 아동 보조양육자 현황

(1) 미취학 아동 보조양육자

문항 응답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보조양육자 유무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영유아를 돌보는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16.6%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여성(22.7%)의 경우 남성보다 보조양육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도시지역(동지역)일수록 보조양육자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심리·정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19.6%), 가족관계가 불만족(17.7%)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조양육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른 보조양육자 유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29.9%), 정치적 성향이 보수일수록(19.4%), 일반인에 대해 신뢰할수록(16.4%) 보조양육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미취학아동 보조양육자 유무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1,003	16.6	83.4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868	16.0	84.0
		여	135	22.7	77.3
	거주지	동	432	18.7	81.3
		읍 면	281 290	15.0 13.2	85.0 86.8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19	29.9	70.1
		중	769	16.8	83.2
		하	215	14.9	85.1
	정치적 성향	진보	295	15.2	84.8
		중도	581	16.8	83.2
		보수	126	19.4	80.6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182	16.4	83.6
		신뢰할 수 없다	77	12.1	87.9
경우에 따라 다르다		724	17.3	82.7	
모르겠다		18	17.1	82.9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도	그렇지 않다	579	17.0	83.0
		보통	289	13.5	86.5
		그렇다	135	22.6	77.4
	스트레스	비인지	330	14.4	85.6
		보통	373	16.5	83.5
		인지	297	19.6	80.4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80	17.1	82.9
		보통	290	19.3	80.7
		그렇다	632	15.4	84.6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불만족	9	17.7	82.3
보통		214	17.1	82.9	
만족		778	16.5	83.5	
해당 없음		1	0.0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 미취학 아동 보조양육자 특성

문항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는 보조양육자는 누구입니까?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보조양육자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82.1%, '개인 및 베이비시터'가 10.3%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여성이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 면 지역(94.6%), 읍 지역(84.6%), 동 지역(77.8%) 순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일수록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심리·정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90.5%)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로 정치적 성향이 진보일수록(93.2%)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일반인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경우(100.0%) 전적으로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표 4-9> 미취학 아동 보조양육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부모님이나 친인척	개인 및 베이비시터	기타	
전체			165	82.1	10.3	7.6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135	80.7	10.6	8.8	
		여	30	91.6	8.4	0.0	
	거주지	동	75	77.8	11.7	10.5	
		읍	46	84.6	10.7	4.7	
		면	44	94.6	4.4	1.0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5	85.4	14.6	0.0	
		중	127	80.1	11.3	8.6	
		하	33	90.6	5.2	4.2	
	정치적 성향	진보	36	93.2	1.5	5.4	
		중도	104	78.2	15.0	6.8	
		보수	24	74.6	9.6	15.8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33	83.3	4.3	12.4	
		신뢰할 수 없다	10	100.0	0.0	0.0	
		경우에 따라 다르다	121	81.8	12.7	5.4	
		모르겠다	1	0.0	0.0	100.0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도	그렇지 않다	88	80.5	12.6	6.9
			보통	46	90.4	4.8	4.8
			그렇다	31	76.0	9.8	14.2
스트레스		비인지	48	77.9	17.3	4.8	
		보통	62	92.4	4.6	3.0	
		인지	55	74.1	10.6	15.3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14	90.5	0.0	9.5	
		보통	54	84.7	7.6	7.7	
		그렇다	97	79.6	13.1	7.3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불만족	3	100.0	0.0	0.0	
		보통	33	77.7	9.3	13.0	
		만족	129	83.2	10.7	6.1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3) 미취학 아동 보조양육자 돌봄 비용

문항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보조양육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보조양육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3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성별로 여성의 여성(37.5만원)이 남성(29.5만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월 10만원 이하의 지출(58.6%)도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 100만원 이상 지출도 남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동 지역(36.9만원), 읍 지역(22.1만원), 면 지역(19.0만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도시지역일수록 지출비용이 많았다.

응답자의 심리·정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울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삶에 대해 만족할수록,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보조양육자 돌봄 비용 지출이 높았다.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82.8만원), 정치적 성향이 진보일수록(41.0만원) 보조양육자 돌봄 비용 지출이 높았다.

<표 4-10> 보조양육자 월평균 돌봄 비용

(단위 : 명, %, 만원)

구분		사례 수	10만원 미만	10~50만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전체		165	46.9	19.9	22.4	10.3	0.5	30.5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135	45.2	20.4	24.5	9.3	0.6	29.5
		여	30	58.6	16.7	8.0	16.7	0.0	37.5
	거주지	등	75	34.4	25.5	28.5	10.7	0.9	36.9
		읍	46	61.5	12.8	17.1	8.5	0.0	22.1
		면	44	72.9	9.0	6.9	11.2	0.0	19.0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5	0.0	8.6	76.8	14.6	0.0	82.8
		중	127	43.3	21.7	24.3	10.1	0.7	31.8
		하	33	69.7	13.6	6.4	10.3	0.0	17.7
	정치적 성향	진보	36	42.3	7.4	35.3	15.0	0.0	41.0
		중도	104	44.7	29.9	15.8	9.0	0.6	26.9
		보수	24	65.0	4.8	23.4	5.6	1.2	24.2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33	35.7	18.8	42.5	3.0	0.0	31.2
		신뢰할 수 없다	10	31.2	22.2	46.6	0.0	0.0	31.1
		경우에 따라 다르다	121	51.7	18.5	16.2	13.0	0.7	30.5
		모르겠다	1	0.0	100.0	0.0	0.0	0.0	20.0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도	그렇지 않다	88	40.1	20.6	26.2	13.2	0.0	35.8
		보통	46	59.3	15.7	16.3	8.1	0.7	23.2
		그렇다	31	54.8	23.3	17.1	2.6	2.3	21.3
	스트레스	비인지	48	33.0	20.6	23.2	23.2	0.0	49.5
		보통	62	54.6	19.1	19.3	6.6	0.4	23.2
		인지	55	50.4	20.2	25.2	3.1	1.1	22.1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14	67.2	8.7	19.4	0.0	4.6	11.6
		보통	54	57.7	18.8	12.7	10.8	0.0	24.8
		그렇다	97	38.4	22.0	28.1	11.3	0.3	36.1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불만족	3	81.4	0.0	0.0	18.6	0.0	19.4
		보통	33	52.2	23.4	16.2	7.5	0.7	24.9
		만족	129	45.0	19.1	24.4	11.0	0.5	32.3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3) 아동 돌봄을 위한 정책육구

(1) 아동 돌봄 어려움 정도

문항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은 10점 만점에 5.71점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여성(5.82점)이 남성(5.60점)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도시지역(동지역)일수록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심리·정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울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삶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가족관계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아동 돌봄이 어렵다고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 변수 중 일반인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뢰하지 않을수록 아동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표 4-11>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평균 (10점만점)
전체			2,703	20.9	33.4	45.7	5.71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1,203	21.7	35.8	42.5	5.60
		여	1,500	20.1	31.2	48.7	5.82
	거주지	동	1,140	19.6	34.1	46.3	5.79
		읍	774	22.4	33.5	44.1	5.69
		면	789	22.3	31.5	46.3	5.53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44	13.1	26.9	60.0
중			2,085	22.3	33.3	44.4	5.62
하			574	16.1	34.2	49.7	6.01
정치적 성향		진보	740	21.0	29.7	49.3	5.76
		중도	1,636	20.8	35.1	44.1	5.69
		보수	320	21.0	33.8	45.2	5.71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467	25.8	25.7	48.5	5.69
		신뢰할 수 없다	184	16.9	27.6	55.4	6.20
		경우에 따라 다르다	1,990	20.0	35.8	44.1	5.68
		모르겠다	60	25.8	27.8	46.4	5.43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도	그렇지 않다	1,532	25.1	30.8	44.1	5.52
		보통	761	15.6	41.8	42.7	5.80
		그렇다	408	13.9	27.3	58.8	6.37
	스트레스	비인지	918	27.4	31.7	40.9	5.27
		보통	970	19.7	38.5	41.7	5.65
		인지	808	15.0	28.6	56.4	6.32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238	13.9	26.3	59.8	6.59
		보통	828	18.0	41.2	40.8	5.71
		그렇다	1,636	23.3	30.6	46.1	5.60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불만족	27	9.9	8.2	82.0	7.56
		보통	656	16.1	38.9	45.0	5.91
		만족	2,017	22.6	32.0	45.4	5.63
해당 없음		2	28.5	0.0	71.5	6.07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2)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문항 아동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36.7%)이다. 하지만 '필요 없다'(29.7%)는 비율이 차순이며, 다음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12.8%) 순이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성별,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평균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면 지역(15.7%)의 경우 동 지역(8.6%)과 읍 지역(7.4%)보다 '시설·기관 이용'에 대한 욕구가 2배 정도 높았다.

응답자의 심리·정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삶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서비스 수요에 대해 '필요 없다'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가 불만족할수록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진보일수록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수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경우(25.4%)가, 중위층(9.7%)과 하위층(8.6%)보다 '시설 및 기관이용'에 대한 응답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표 4-12〉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단위 : 명, %)

구분			사 례 수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필요 없음	집으로 찾아 오는 서비스	시설 기관 이용(입 소 등)	종합적 인 상담, 정보의 제공	기 타	무 응 답
전체			2,705	36.7	29.7	12.8	9.7	8.6	1.9	0.7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1,203	35.7	31.0	11.9	10.4	8.7	1.5	0.7
		여	1,502	37.6	28.4	13.5	9.0	8.5	2.2	0.7
	거주지	동	1,141	36.2	31.8	12.3	8.6	9.1	1.7	0.4
		읍 면	774 790	41.8 30.9	25.8 29.5	12.5 14.4	7.4 15.7	9.5 6.2	2.1 2.2	1.0 1.1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44	26.2	30.4	5.3	25.4	9.2	0.7	2.8
		중	2,087	36.0	29.9	12.9	9.7	9.3	1.8	0.5
		하	574	40.3	28.8	12.9	8.6	5.8	2.2	1.3
	정치적 성향	진보	740	38.6	26.7	14.3	10.6	7.9	1.5	0.4
		중도	1,637	35.9	30.7	12.6	8.9	9.2	2.0	0.7
		보수	321	35.9	31.9	9.6	11.4	7.7	2.2	1.4
	일반인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467	34.5	32.3	13.7	6.8	9.8	2.3	0.6
		신뢰할 수 없다	184	26.3	32.9	20.6	12.8	4.8	1.7	1.0
		경우에 따라 다르다	1,991	38.4	28.5	11.9	10.0	8.9	1.7	0.6
		모르겠다	61	29.5	40.2	10.0	12.5	2.7	4.1	0.9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도	그렇지 않다	1,533	34.9	31.6	13.0	8.6	9.1	2.3	0.6
		보통	761	39.2	28.9	12.2	10.2	8.1	0.9	0.4
		그렇다	409	38.8	23.1	13.0	13.5	7.9	2.2	1.6
	스트레스	비인지	920	33.0	34.4	11.9	9.6	8.3	1.9	0.8
		보통	970	39.7	30.1	10.8	6.9	10.1	1.8	0.5
		인지	808	37.3	23.9	15.8	13.2	7.2	2.0	0.6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238	40.7	22.4	16.1	12.4	5.8	1.3	1.3
		보통	828	40.7	27.9	11.7	9.2	8.9	0.6	0.9
		그렇다	1,638	34.2	31.5	12.8	9.5	8.9	2.6	0.5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불만족	27	38.9	5.0	27.1	9.8	13.4	5.9	0.0
		보통	657	36.0	30.3	10.4	10.3	10.7	1.6	0.7
		만족	2,018	36.9	29.8	13.3	9.4	7.9	1.9	0.7
해당 없음		2	0.0	0.0	28.5	71.5	0.0	0.0	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3) 아동 돌봄 선호 프로그램

문항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선호하는 내용은 1순위 '보육서비스 이용의 다양성'(49.1%)이다. 이는 시간제보육,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유연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순위는 '영유아 놀이 등 활동의 다양성'(36.4%)으로 이는 놀이공간,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놀이 책을 이용한 활동, 장난감 및 영유아 용품 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육아 및 가족 품앗이'는 6.0%, '양육 상담 및 부모교육' 5.9%, '영유아 건강증진'은 1.8%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성별, 지역별 1,2순위는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양육 상담 및 부모교육'은 도시지역일수록 선호도 비율이 높았고, '공동육아 및 가족품앗이'는 동 지역(8.6%)이 읍 지역(2.1%)과 면지역(4.1%)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은 우울정도, 스트레스 인지정도, 삶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정도와 관계없이 선호하는 1,2순위는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하지만, 우울한 경우(11.1%)는 우울하지 않거나(5.1%), 보통(5.4%)인 경우에 비해 '양육 상담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선호하는 1,2순위는 전체 응답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표 4-13〉 미취학 아동보육 프로그램 선호도 1순위

(단위 : 명.%)

구분		사례 수	보육서비스 이용의 다양성	영유아 놀이 등 활동 다양성	공동육아 및 가족품앗 이	양육 상담 및 부모교 육	영유아 건강증 진 프 로그램	기타	
전체		1,003	49.1	36.4	6.0	5.9	1.8	0.8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남	868	49.4	36.3	5.7	5.9	1.9	0.7
		여	135	46.1	36.9	8.5	5.6	0.7	2.2
	거주지	동	432	51.8	31.5	8.6	6.8	0.8	0.5
		읍 면	281 290	45.1 47.4	45.3 37.4	2.1 4.1	4.3 5.7	2.5 3.5	0.8 1.8
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적 지위	상	19	69.8	26.9	0.0	0.0	0.0	3.2
		중	769	49.6	34.9	6.3	6.7	1.7	0.9
		하	215	45.9	42.8	5.3	3.4	2.2	0.3
	정치적 성향	진보	295	57.3	29.8	4.0	6.2	2.4	0.3
		중도	581	46.1	38.9	7.3	5.3	1.2	1.3
		보수	126	41.5	41.8	5.2	8.5	3.0	0.0
	일반인 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다	182	50.9	36.9	6.7	4.5	0.8	0.3
		신뢰할 수 없다	77	57.0	29.6	5.2	6.5	0.7	1.0
		경우에 따라 다르다	724	47.9	37.2	6.0	6.0	2.0	0.9
		모르겠다	18	38.3	32.2	3.3	17.1	9.2	0.0
심리 정서적 특성	우울정 도	그렇지 않다	579	51.7	34.4	7.3	5.1	1.2	0.3
		보통	289	47.1	39.4	4.6	5.4	2.3	1.3
		그렇다	135	41.3	39.0	3.1	11.1	3.3	2.2
	스트레 스	비인지	330	53.5	35.0	5.8	4.6	0.4	0.7
		보통	373	47.7	34.1	8.1	7.0	2.9	0.2
		인지	297	45.5	41.3	3.4	6.1	2.0	1.8
	삶에 대한 만족	그렇지 않다	80	43.1	42.6	2.8	6.9	1.2	3.4
		보통	290	47.2	34.7	5.9	8.9	2.9	0.3
		그렇다	632	50.7	36.3	6.4	4.5	1.4	0.7
전반적 가족관 계 만족도	불만족	9	67.2	32.8	0.0	0.0	0.0	0.0	
	보통	214	51.4	33.5	7.0	5.8	1.9	0.3	
	만족	778	48.2	37.2	5.8	6.0	1.8	1.0	
	해당 없음	1	100.0	0.0	0.0	0.0	0.0	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3. 미취학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방향

1)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대

충청남도에서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취학 자녀인 영유아를 돌보는 방식으로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양육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가 다양화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인 읍·면지역과 경제적 수준이 상위권이라고 인식하는 도민은 가족원이 돌보는 비율이 높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이 요구된다.

2)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체계 구축

돌봄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양육자가 심리·정서적으로 긍정적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이고,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우 양육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은 절반이하이나, 경제적으로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 돌봄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녀 돌봄이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어, 양육지원 정책 개발 시 영유아뿐만 아니라 양육자 대상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3) 가구소득 규모대비 돌봄 비용 상한제 도입

영유아 및 아동을 돌보는 경우 무엇보다 '돌봄 비용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이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났다.

부부이외에 미취학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는 16.6%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도시인 동지역인 경우,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인 경우 보조양육자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보조양육자에 대한 돌봄 비용은 월평균 30.5만원이나, 지역별로 동지역 36.9만원, 면지역 19만원, 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위권

82.8만원, 하위권 17.7만원으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심리·정서적(우울, 스트레스, 삶에 대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으로 긍정적일수록 돌봄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충남은 지역별, 가족소득 수준별, 양육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에 따라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4) 보육 및 돌봄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고도화

미취학 아동 양육자는 자녀의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사회성 발달 등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울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상위권이며, 정치적 성향이 진보인 경우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중요시 하고 있다.

기존에 시설보육의 양적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서비스 제공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리·지원이 요구된다.

5) 다양한 방식의 돌봄 및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을 돌보기 위해 유연한 돌봄 서비스 이용과 놀이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 영유아 및 아동 양육시 돌봄의 사각시간대가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시간제보육, 아이돌보미 등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 놀이공간 마련, 아동 체험프로그램 운영, 놀이 책을 이용한 활동, 장난감 및 영유아 용품 대여 등 놀이를 이용한 발달단계에 따른 공간 및 서비스 제공 확대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최은영(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I)', 육아정책연구소.
충청남도(2013-2019), 『충남 사회조사』, 충청남도 홈페이지.

문화다양성 (인권)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5. 도민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우복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wbn0826@cwpli.re.kr



- 충남에 거주하는 국제이주민,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민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하나로서의 이주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살펴봄.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 자료로서 충남 사회조사 각 년도의 이주민 관련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충남 사회조사 분석결과, 2019년 도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편이고, 2016년 대비 2019년 다문화사회 인식도 부정적으로 나타남
-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도민비율 역시 2018년부터 하락하는 가운데, 유형별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취약 인식 도민 비율이 높은 편임
-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에 미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다문화사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줌으로써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줄이고, 이주민 인권을 증진해야 함
- 이주민과 다문화사회 관련 중앙정부 실태조사와 충남사회조사의 결과 등 정책사업 기획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현장 공유를 확대하여 근거기반 전략적 접근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무엇보다 여성과 20대와 30대 청년세대의 다문화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국민 역차별'과 '불공정' 등 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충청남도(2017.11.1.)」에 의하면, 충남 외국인주민 수는 전국 4위,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8%로 전국 1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11월 초 공표된 2018년 11월 기준 통계를 보면 충남 외국인주민은 117,094명이며 비율은 5.4%로 비율상 전국 1위를 유지하였다. 국내 광역지자체 외국인주민 비율이 5%대 진입은 처음이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주민과 선주민 상호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전반의 다문화사회 관련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2012년 시작된 이래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가 지난해 있었다. 그런데 2018년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경우, 청소년은 전에 비해 증가하여 70점대에 이르렀으나 성인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50점대 초반에 머물렀다.

현재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주축인 성인의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수용성이 하락하였고, 일부 상승한 항목(세계시민행동의지) 역시 60점에 미치지 못함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 역사 10년이 넘는 지금도 우리사회 인식의 변화가 더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5-1>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일반)

(단위: 점)

연도	사례수 (명)	비율 (%)	수용성 (점)	차원(점)			구성요소별(점)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Wt=100	W1=39	W2=38	W3=23	w1=12	w2=13	w3=14	w4=12	w5=14	w6=12	w7=12
2012	2,500	100	51.17	53.23	49.86	49.85	48.08	48.84	61.73	49.91	55.17	43.61	46.96	53.00
2015	4,000	100	53.95	55.15	53.45	52.76	49.36	50.32	64.60	46.44	66.01	45.81	48.88	56.98
2018	4,000	100	52.81	53.90	51.59	52.98	49.34	48.78	62.58	45.69	64.46	42.48	48.25	58.13

자료: 여성가족부,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19.3)

2) 연구 목적

충남도민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하나로서의 이주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지역 자료로서 충남 사회조사 각 년도의 이주민 관련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이주민에 대한 충남 도민의 인식

1) 충남 도민의 국제 이주민 인권 존중도 인식

국제이주로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 인권 존중 정도(0~10)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도민비율이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상승하다가 2018년부터 하락하였다.

둘째, 유형별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취약 인식 도민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전년 대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존중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5-2> 충남도민의 이주민 인권존중 정도 인식 변화

(단위: 점)

연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2012	4.73		4.93
2014	4.83		5.0
2016	5.06	5.30	5.35
2017	5.60	5.74	5.75
2018	5.34	5.48	5.52
2019	5.09	5.31	5.41
2018 대비 2019년 증감	-0.25	-0.17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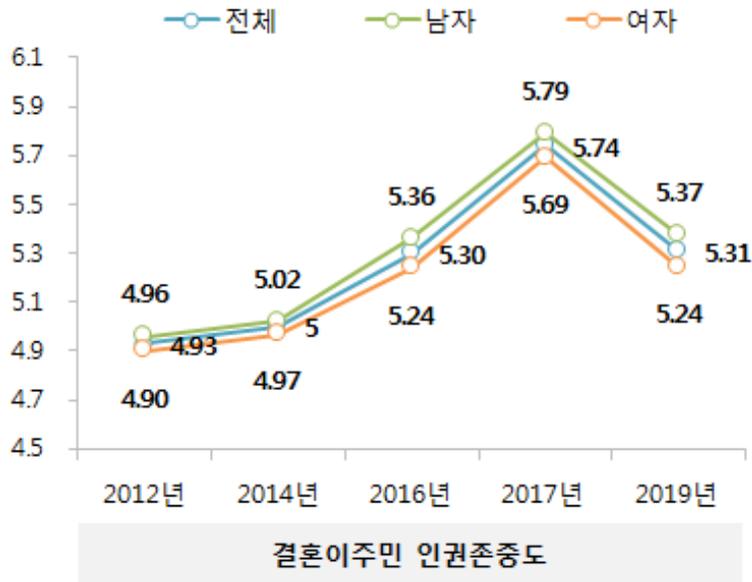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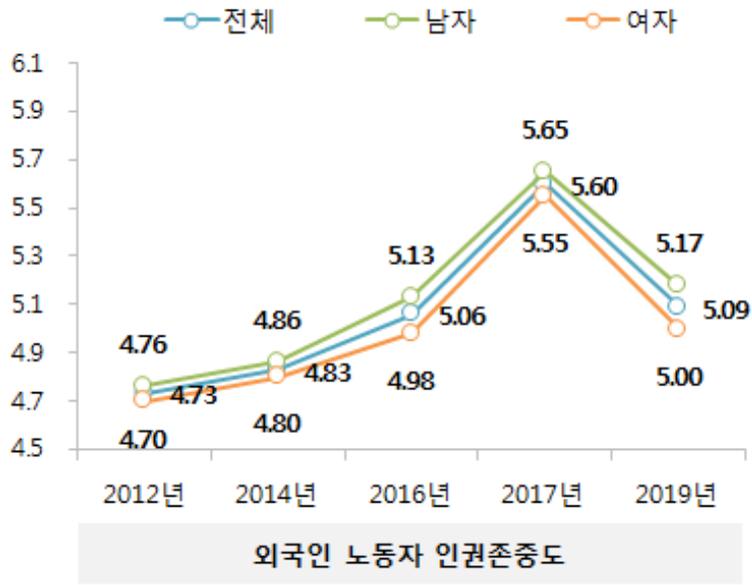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충청남도. 각 년도 재구성. 0~10점.⁶⁾

6) 2012년 [결혼이주여성]항목, 2014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단일 항목, 2016년부터 [결혼이민자], [귀화자]로 구분하여 조사됨. 한편, 2012년, 2014년은 10점 척도로 조사되어 10점 만점 평균이 제시됨.(0 전혀 존중 안 됨 ~ 10 매우 존중). 2016년 이후 5점 척도로 조사됨. 이에 여기서는 10점 척도 평균으로 제시함.



<그림 5-1> 충청도민의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주민 인권존중 정도 인식 변화(2012~2019)

(단위 : 점)



주: 10점 만점 평균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2~2019)

2) 이주민에 대한 충남 도민의 사회적 거리감

2017년 국민 일반의 이주민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은 결혼이주민에 비해 이주(외국인) 노동자와 북한이탈이주민에 대해 크게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매우 거리감을 느낀다+거리감을 느낀다)

(단위: %)

		사례수	성소수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타종교인	장애인
전체		(2,100)	62.8	42.9	41.9	21.9	16.8	16.0
성별	남자	(1,068)	69.6	42.0	37.3	21.2	17.8	15.5
	여자	(1,032)	55.8	43.7	46.6	22.7	15.7	16.6

자료: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국민인식). 문화체육관광부(2017.12).

2019년 조사된 충남 도민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0~10점)은 성소수자를 제외하면, 내국인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 이주민 유형 중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주민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표 5-4> 충남 도민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요약

(단위: 점)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타종교인	장애인
평균	6.3	4.20	4.16	3.94	3.71	3.36
순위	1	2	3	4	5	6

척도: 0~10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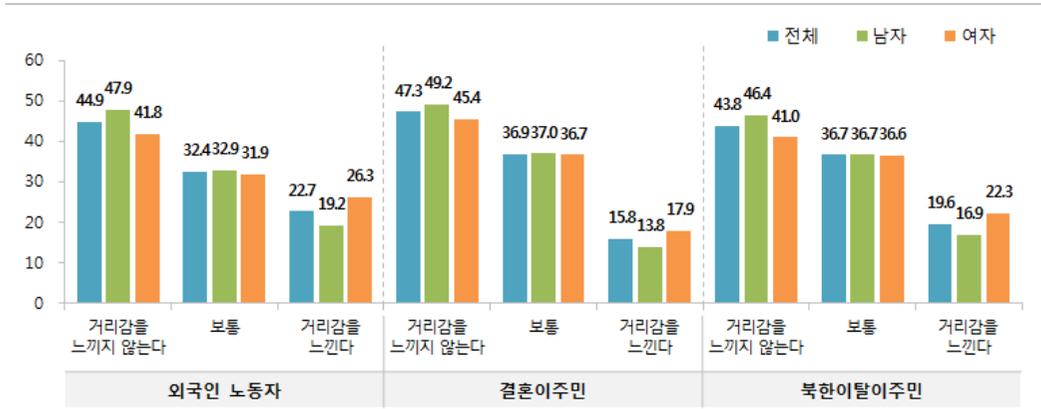


이주민 관련 충남 도민의 사회적 거리감 인식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모든 이주민 유형에 대해 남자보다 여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

<그림 5-2> 충남 도민 성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둘째, (연령별) 모든 유형에 대해 30대의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

셋째, (학력별) 초졸 이하 학력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모든 유형에 대해 크다.

넷째, (거주기간별) 외국인노동자는 5~10년 미만 거주자가, 결혼이주민은 15년 이상 거주자가, 북한이탈주민은 10~15년 미만 거주자가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적 크게 보인다.

〈표 5-5〉 충남 도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단위 : %, 10점)

구분	사 례 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	거리감을 느낀 다	평균 (점)	거리감을 느끼 지 않는 다	보통	거리감을 느낀 다	평균 (점)	거리감을 느끼 지 않는 다	보통	거리감을 느낀 다	평균 (점)
전체	(25,761)	44.9	32.4	22.7	4.20	47.3	36.9	15.8	3.94	43.8	36.7	19.6	4.16
성 별	남자 (1,2005)	47.9	32.9	19.2	4.00	49.2	37.0	13.8	3.81	46.4	36.7	16.9	3.99
	여자 (13,756)	41.8	31.9	26.3	4.41	45.4	36.7	17.9	4.07	41.0	36.6	22.3	4.34
연 령 별	15~19세 (745)	44.4	32.8	22.8	4.22	45.5	37.8	16.8	3.99	43.6	35.7	20.7	4.19
	20대 (1,473)	48.1	29.1	22.8	4.13	51.6	32.2	16.2	3.78	46.9	31.5	21.6	4.10
	30대 (2,581)	43.4	31.9	24.7	4.34	46.1	36.8	17.1	4.03	41.8	35.8	22.4	4.35
	40대 (4,036)	43.8	34.9	21.3	4.21	46.5	39.5	14.0	3.95	43.3	39.2	17.4	4.15
	50대 (4,771)	47.7	32.4	20.0	4.04	49.2	36.5	14.3	3.85	46.4	37.0	16.5	4.00
	60세이상 (12,155)	43.2	32.6	24.2	4.26	45.6	37.5	16.9	4.00	41.9	37.9	20.2	4.19
학 력	초졸이하 (7,804)	40.8	33.8	25.3	4.38	43.6	38.7	17.7	4.10	39.5	39.4	21.2	4.31
	중졸이하 (3,061)	46.2	30.7	23.1	4.09	47.7	36.1	16.2	3.88	44.4	36.2	19.4	4.10
	고졸이하 (7,714)	45.8	32.8	21.4	4.14	47.7	37.4	14.9	3.91	44.2	37.8	18.0	4.12
	대학이상 (6,967)	45.7	31.6	22.7	4.20	48.7	35.6	15.7	3.89	45.3	34.3	20.4	4.14
	무응답 (215)	41.7	40.2	18.1	4.40	46.7	41.2	12.1	4.02	44.5	40.2	15.4	4.24
충 남 거 주 기 간 별	5년 미만 (2,020)	47.9	31.7	20.4	4.02	51.5	36.1	12.4	3.66	46.7	36.2	17.1	3.95
	5~10년 미만 (1,711)	43.5	34.0	22.5	4.27	46.7	37.7	15.7	3.95	43.7	37.1	19.1	4.17
	10~15년 미만 (1,780)	44.2	33.3	22.5	4.23	48.6	36.0	15.5	3.95	44.7	35.5	19.8	4.20
	15~20년 미만 (1,626)	44.9	31.6	23.5	4.23	46.8	36.0	17.1	3.97	43.9	34.9	21.2	4.19
	20년이상 (18,624)	44.7	32.3	23.0	4.21	46.7	37.1	16.2	3.97	43.1	37.1	19.8	4.18

주: 느끼지 않음(0~4점), 보통(5), 느낌(6~10).

10점 만점 평균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9)



3)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2016년 및 2019년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민 인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식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6>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연도	인구감소문제해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		중소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필요		사회적 편견 해소 필요		다문화이주민의 국내정착지원 필요	
	평균(점)	반대(%)	평균(점)	반대(%)	평균(점)	반대(%)	평균(점)	반대(%)
2019년	2.73	41.6	2.91	32.7	3.33	15.2	2.92	29.7
2016년	2.96	32.8	3.09	26.8	3.49	13.8	3.04	28.2

주: 5점 만점 평균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6, 2019)

4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2016년 보다 2019년에 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동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평균(5점)점수도 낮아졌다.

7) 사회적 편견 해소 문항의 경우, 2016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질문이 2019년 다문화이주민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되어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

<표 5-7>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

(단위: %, 점)

구분	2016				2019				
	비동의	보통	동의	평균	비동의	보통	동의	평균	
전체	32.8	37.4	29.8	2.96	41.6	33.0	25.4	2.73	
성별	남자	32.7	36.2	31.1	2.98	41.5	31.6	26.9	2.75
	여자	33.1	38.6	28.4	2.95	41.7	34.4	23.9	2.71
연령별	15~19세	30.5	42.6	26.9	2.93	32.3	42.5	25.2	2.88
	20대	34.3	38.0	27.8	2.91	45.2	31.1	23.7	2.64
	30대	36.4	36.7	26.8	2.87	46.4	32.3	21.3	2.60
	40대	31.1	38.8	30.1	3.00	43.4	31.2	25.4	2.70
	50대	31.0	36.4	32.5	3.03	40.6	30.6	28.8	2.78
	60세이상	32.9	35.6	31.3	2.99	38.8	34.8	26.3	2.79
학력	초졸이하	33.3	37.1	29.6	2.96	35.6	39.3	25.1	2.82
	중졸이하	32.7	35.7	31.5	2.99	38.6	34.6	26.8	2.79
	고졸이하	31.3	38.8	29.8	2.98	42.0	32.7	25.3	2.72
	대학이상	34.1	36.5	29.4	2.94	44.8	29.9	25.3	2.68
	무응답					45.1	28.1	26.7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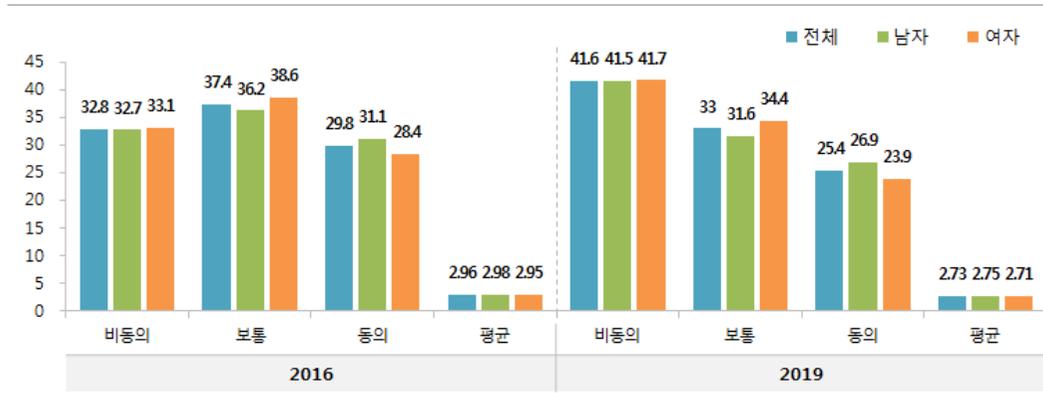
주: 비동의(1.전혀 동의하지 않음 + 2.비교적 동의하지 않음), 보통(3), 동의(4.비교적 동의함 + 5.전혀 동의하지 않음).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6, 2019)

도민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남자보다 여자의 인식이 낮다.

<그림 5-3> 충남 도민 성별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외국인 이민정책 필요성

(단위 : %, 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6, 2019)



둘째, (연령별) 30대와 20대의 인식이 낮다.

셋째, (학력별) 대학이상의 인식이 낮다.

(2)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필요성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016년보다 2019년에 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동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평균(5점 만점)도 하락하였다.

〈표 5-8〉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필요성

(단위 : %, 점)

구분	2016				2019				
	비동의	보통	동의	평균	비동의	보통	동의	평균	
전체	26.8	39.4	33.8	3.09	32.7	38.5	28.8	2.91	
성별	남자	27.0	38.1	35.0	3.10	32.2	37.3	30.5	2.94
	여자	26.7	40.9	32.4	3.07	33.2	39.7	27.1	2.88
연령별	15~19세	25.8	45.5	28.7	3.03	24.6	47.6	27.8	3.03
	20대	29.3	40.2	30.5	3.01	36.1	36.9	27.0	2.84
	30대	29.3	39.6	31.0	3.01	35.9	38.0	26.1	2.84
	40대	23.3	41.4	35.2	3.16	32.8	38.8	28.4	2.90
	50대	24.9	37.7	37.4	3.16	31.7	35.7	32.6	2.98
	60세이상	28.0	37.1	35.0	3.09	31.7	39.1	29.2	2.93
학력	초졸이하	28.9	38.7	32.4	3.05	30.0	43.0	27.0	2.92
	중졸이하	27.2	37.0	35.8	3.11	31.4	39.1	29.5	2.93
	고졸이하	25.3	40.8	33.9	3.11	33.3	38.7	27.9	2.90
	대학이상	27.1	39.1	33.8	3.08	33.6	36.0	30.4	2.92
	무응답					40.1	33.5	26.4	2.68

주: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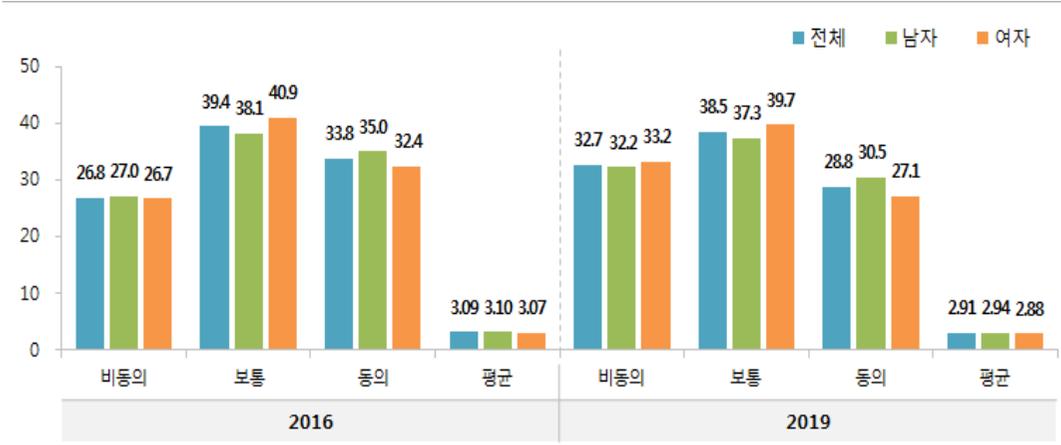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6, 2019)

도민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남자보다 여자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5-4> 충남 도민 성별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 필요성

(단위 : %, 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6, 2019)

둘째, (연령별) 20대와 30대의 인식이 낮다.

셋째, (학력별) 2016년 초졸이하와 대졸이상의 인식이 낮았으며, 2019년 고졸이하와 초졸이하, 대졸이상의 인식이 낮다.

(3)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필요성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2016년보다 2019년에 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동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평균 점수(5점 만점)도 하락하였다.



<표 5-9>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필요성

(단위 : %, 점)

구분	2016				2019				
	비동의	보통	동의	평균	비동의	보통	동의	평균	
전체	13.8	37.0	49.2	3.49	15.2	43.5	41.4	3.33	
성별	남자	13.7	36.3	50.0	3.51	14.9	42.4	42.7	3.35
	여자	13.8	37.8	48.3	3.48	15.4	44.6	40.0	3.31
연령별	15~19세	10.0	38.2	51.8	3.60	12.9	44.3	42.8	3.41
	20대	12.4	36.0	51.6	3.54	15.6	39.8	44.6	3.38
	30대	13.3	36.9	49.8	3.51	14.2	41.1	44.6	3.38
	40대	11.2	36.0	52.8	3.60	14.5	42.1	43.4	3.37
	50대	14.2	36.1	49.7	3.50	14.6	42.1	43.3	3.36
	60세이상	17.3	38.7	44.0	3.36	16.7	48.2	35.2	3.21
학력	초졸이하	18.1	40.2	41.7	3.31	16.0	52.9	31.0	3.17
	중졸이하	15.2	38.3	46.6	3.43	16.3	45.9	37.8	3.26
	고졸이하	13.5	38.1	48.3	3.48	15.9	43.3	40.8	3.31
	대학이상	11.3	34.0	54.7	3.62	13.5	38.6	47.9	3.45
	무응답					31.4	36.8	31.8	2.91

주: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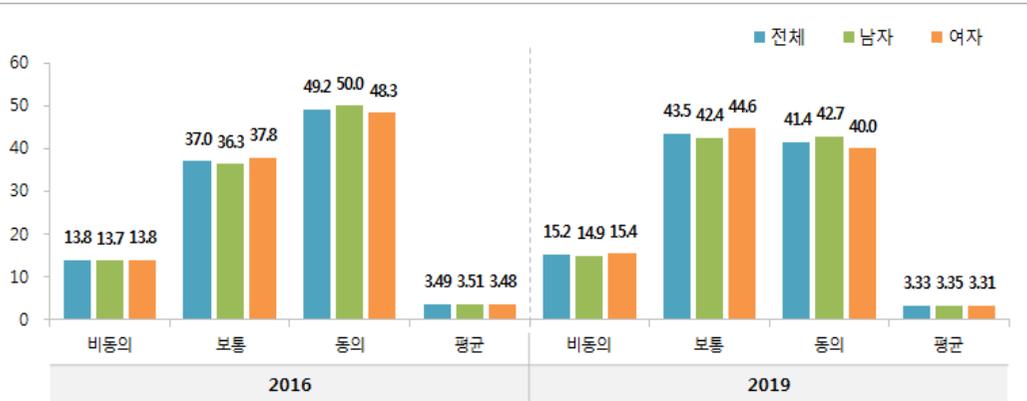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6, 2019)

도민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남자보다 여자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5-5> 충남 도민 성별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필요성

(단위 : %, 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6, 2019)

둘째, (연령별) 60대 이상의 인식이 낮다.

셋째, (학력별) 초졸이하의 인식이 낮다.

(4) 다문화 이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 필요성

‘다문화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문항에 2016년보다 2019년에 비동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고, 동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평균 점수(5점 만점)도 하락하였다.

<표 5-10>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이주민 국내정착 지원 필요성

(단위 : %, 점)

구분		2016				2019			
		비동의	보통	동의	평균	비동의	보통	동의	평균
전체		28.2	40.7	31.0	3.04	29.7	43.6	26.7	2.92
성별	남자	28.1	39.9	32.0	3.06	29.3	42.6	28.2	2.94
	여자	28.4	41.5	30.1	3.03	30.1	44.7	25.2	2.89
연령별	15~19세	21.9	45.9	32.2	3.12	23.2	48.4	28.4	3.03
	20대	30.2	39.5	30.3	3.01	30.7	42.1	27.2	2.89
	30대	30.0	40.3	29.7	3.01	32.7	42.5	24.8	2.85
	40대	24.6	41.9	33.4	3.13	29.3	42.2	28.5	2.94
	50대	27.7	39.5	32.8	3.07	29.1	41.8	29.1	2.96
	60세이상	30.8	40.1	29.1	2.98	29.5	46.1	24.4	2.89
학력	초졸이하	32.0	41.2	26.9	2.93	29.0	49.4	21.6	2.87
	중졸이하	30.0	40.2	29.8	3.00	30.4	43.6	26.0	2.90
	고졸이하	27.7	42.0	30.3	3.04	29.6	43.8	26.6	2.92
	대학이상	26.3	39.4	34.2	3.12	29.8	40.9	29.3	2.94
	무응답					39.2	31.3	29.4	2.73

주: 5점 척도

자료: 「충남 사회조사」, 충청남도, 201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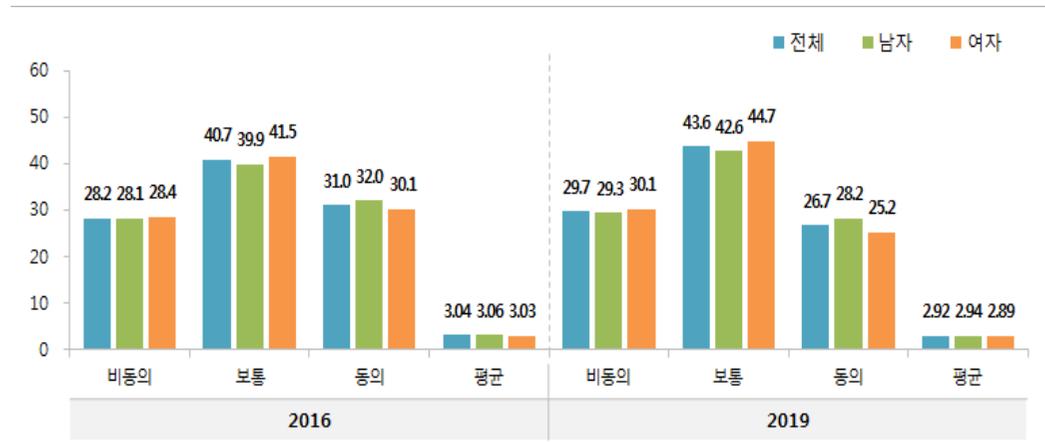


도민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남자보다 여자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5-6> 충남 도민 성별 다문화사회 인식 변화: 이주민 국내정책 지원 필요성

(단위 : %, 점)



주: 5점 척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6, 2019)

둘째, (연령별) 60대 이상과 20~30대의 인식이 낮다.

셋째, (학력별) 초졸 이하자의 인식이 낮다.

(5) 2016년, 2019년 도민 다문화사회 인식 비교 요약

다문화사회에 대한 2016년과 2019년 두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항목에서 2016년 대비 2019년에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 두 조사 모두 남자에 비해 여자의 인식이 낮다.

셋째, (연령) 두 조사 모두 20대와 30대의 이민정책 및 외국인 고용확대 필요성 인식이 낮고, 60대 이상자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이주민 국내 정착 지원 필요성 인식이 낮다.

넷째, (학력별) 두 조사 모두 대학 이상 학력자의 이민정책 및 외국인 고용확대 필요성 인식이 낮고, 초졸 이하 학력자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이주민 국내 정착 지원 필요성 인식이 낮다.

4. 정책적 시사점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고 수가 많은 지역이다. 그에 비해 2019년 도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큰 편이고, 이주민의 사회적 거리감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⁸⁾ 또한 2016년 대비 2019년 다문화사회 인식도 낮아졌으며 도민이 인식하는 이주민 인권 존중도 역시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반다문화정서가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지역의 다문화수용성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및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 조사결과는 우리사회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유형 역시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사회로 이동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과 도민 등 선주민의 인식과 태도가 수용적으로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어 사회갈등을 차단하고 사회발전의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충남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에 미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다문화사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줌으로써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과 차별을 줄이고 이주민 인권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이주민과 다문화사회 관련 중앙정부 실태조사와 충남 사회조사의 결과 등 정책사업 기획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현장 공유를 확대하여 근거기반 전략적 접근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여성의 이주민과 다문화사회 인식이 낮은 사실에 주목하고 구체적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안전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등 젠더 작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30대 청년세대의 인식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국민 역차별'과 불공정 등 현 다문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주민 혐오가 확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8)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문화다양성 증진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9)에 의하면, 충남 결혼이주여성이 도민 일반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5점 척도로 2.95점, 28.5%가 거리감을 (매우)느낌으로 응답하였다.(2019:95)



참고자료

여성가족부(2019).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충청남도(2012~2019). 충남 사회조사.

이혜진(2018). 울산시민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우복남(2019). 충남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문화다양성 증진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도민의 삶과 정책

보고서 발간에 참가한 사람

연 구 진

양정빈(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최명민(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원철(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최은희(충청남도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정책연구팀장)
우복남(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충 청 남 도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김창태(빅데이터통계팀장)
윤정화(담당자)

(주)글로벌리서치

김태영(글로벌리서치 연구이사)
서현창(글로벌리서치 연구차장)
황소희(글로벌리서치 연구대리)
김상민(글로벌리서치 연구대리)
신지혜(글로벌리서치 연구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371-10)

2019 도민의 삶과 정책

발행일 2019. 12.

발행인 충청남도지사

발행처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041-635-2077, 3737
